

바이든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감축"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국의 목표치를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리더십에 협력하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뒤 열린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리더십과 새로운 국제 연대의 틀을 세계에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정상회의 첫날 1세션에서 참여,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같이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 의지를 밝힌 것은 바이든 리더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간 협력 확대 및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대응 선도그룹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2030년 50%로 감축...지구 온도 상승 1.5도로 억제해야" 이날 개막 모두발언에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보다 강화된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각국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폐광·폐유전 정화·개간사업, 전기차 및 충전소 확충, 수소경제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통해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 수백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30년까지는 반드시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50%(2005년 대비)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탄소중립을 2050년도까지는 반드시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 온도 상승을 반드시 섭씨 1.5도 미만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와 산불뿐만 아니라 가뭄과 폭염, 그리고 허리케인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계와 삶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모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에는 기존 감축 목표치를 더욱 상향한 새로운 목표 채택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23일 화상으로 진행,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미국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화상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정상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으로 진행되며 ▲1세션 기후목표 증진 ▲2세션 기후재원 조성 ▲3세션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4세션 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중동·유럽·미주 등 주요국 정상 40여 명을 초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화상 참여를 위해 상춘재에 별도로 화상회의장을 준비하고, 곳곳에 우리의 최첨단 기술력과 전통 문화 등을 알리는 장치와 소품을 마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상회의장은 디지털기술과 전통을 융합한 한국형 서재 스타일로 꾸며졌다"면서 "전통한옥인 상춘재 대청마루를 활용해, 최첨단 차세대 디스플레이(T-OLED)를 배치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특히 디지털 이미지로 송출되는 한국의 사계절 영상은 한국 건축문화의 특징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빌리는 차경(借景)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수/기자

접종센터 29곳 추가 개소 총 204곳...“접종속도 더욱 빨라질 것”

75세 이상 어르신·노인시설 입소자 등 신속 진행...이달 말까지 264곳으로 확대 맞춤형 검사전략으로 감염확산 차단 성과...교정시설·외국인 확진비율 등 감소

22일부터 지역예방접종센터 29곳이 추가 개소되면서 총 204곳이 운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이날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는 하루 동안 신규로 13만 122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누적적으로 총 190만 3767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6일 일일 접종자 수가 최초로 10만 명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적으로 12만~13만 명 수준으로, 이는 지난 1일 4만 4628명이 접종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접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총괄반장은 “22일부터 예방접종센터가 29곳이 추가 개소돼 총 204곳이 운영된다”며 “추가되는 곳은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 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4월 말까지 예방접종센터는 264곳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회필수인력까지 접종대상이 늘어나고 확대된 접종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면 접종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및 종사자의 2차 접종이 개시되고 1차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은 3주째가 되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접종을 받는다.

한편 배 총괄반장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 대상자의 일제검사 등으로 진단검사 확대에 한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성과들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환자가 이전보다 감소하는 감염 확산 차단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정시설 확진자는 지난 1월 423명에서 2월에 10명, 3월에는 2명으로 줄었고, 17일 현재 기준으로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확진비율도 3월 1주 14.4%에서 17일 기준 3.8%로 대폭 낮아졌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권고기간과 이후 3월 18일까지 의무화기간의

확진자를 비교할 때 선제검사의 의무화 시행으로 확진자가 2341명에서 159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배 총괄반장은 “지역의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위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식/기자

[칼럼] 책은 마음의 양식이 인류의 스승이다

오늘은 국제연합전문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살다보면 별의 별 날도 다 있었지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말을 글로 표현하고 글을 정리하여 문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기에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을까?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올해로 20회째다. 사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니, 살아가는 이치를 안내하는 스승이니, 미사여구가 다 있었지만 무엇보다 책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있을 때는 모르는 소중함, 소리만 내다가 문자로 기록하지 못했다면 문명은 커녕 어떤 역사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을 것이다.인류가 문명을 이룬 이래 가장 많이 읽힌 서적이 성경이라 한다. 물론 불경이나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 등 많은 종교 서적과 문화예술·스포츠는 물론 모든 분야에 걸쳐 문자로 기록된 서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되짚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고려후기에 제작된 판본대장경이 경남 함안군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연도를 보면 1088년 제작되어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8만 4000번에 대치하는 8만 4000명분을 수록한 대장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적인 내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 가치는 전 세계 어느 경제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우리민족의 보물이다.

인류의 스승이라 할 수 있다.되짚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고려후기에 제작된 판본대장경이 경남 함안군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연도를 보면 1088년 제작되어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8만 4000번에 대치하는 8만 4000명분을 수록한 대장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적인 내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 가치는 전 세계 어느 경제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우리민족의 보물이다.

현재의 강대국 미국이 불과 200년 전에 독립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게임도 안 될 만큼 우월하고 위대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다.이쯤에서 책을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림책, 조금 커서는 어린이책이나 유치원 가서 동화책,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때려야 할 수 없는 교과서, 참고서, 어쩌다 잠시 잠나면 만화책이나 소설책, 남자라면 군대 가서 각종 알기 사형이 적힌 책, 여성이라면 자신의 정신적 교양을 쌓기 위한 에세이집이나 취업을 돕기 위한 전문서적 등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빛처럼 빠른 휴대전화에 온갖 정보가 있는데 무엇 하리 책을 볼까. 천만의 말씀이다.첨단 스마트 시대에 공무원 시험이라도 합격하려면 관련 서적과 죽자살자 씨름해야 하고 어느 정도 나아가려면 더 많은 학습한 자세로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삶의 향기를 읽어야 한다.필자 또한 사무실에 빠빠히 쫓겨 서적들이 눈에 익숙하지만 사실 절반도 못 읽는 게 현실이다. 어쩌다 지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했다며 보내 준 책자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선거용으로 제작되어 참모진들이 돈으로 꾸며놓은 냄새가 가득하니 무슨 읽을 맛이 나겠는가.

책을 읽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군가는 심혈을 기울여 저자 이름을 밝은 다음 출판하는 지은이가 있다.원고를 작성한 자, 책을 만드는 자, 읽는 자와 책장에 꽂아두고 다음의 독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가 있다. 휴여 독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더해봐도 50권이 안 된다.인터넷을 뒤지고 스마트폰을 열면 온갖 정보가 넘치는데 언제 한가하게 앉아서 종이 페이지를 넘길까. 더 정확히 자수 하면 게으름이다.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차분히,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 시점에 저자의 마음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역사와 문화, 위인전이나 유명한 소설, 삼국지나 다큐멘터리에서나 볼직한 자연현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으로 책속에 별의 별 세상이 다 있음을 공감하게 된다.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사실 호랑이는 멸종된 것이나 진배없으니 빼놓고, 사람이라면 수명이 길어야 평균 90인데 나고 지라고 어느 정도 돌아볼 시점이라면 적어도 50은 넘어야 한다.

통장계좌나 등기부 등본에 이름 올린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거 같으면 앨범 속에 후배사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결론적으로 기억은 한계가 있고 기록은 근거가 있다. 이쯤에서 누구나 각자가 자신만의 과거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가 가족들이 두고 볼 수 있도록 저서한 권쯤은 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아려울까, 책의 출판 가치는 남의 호평을 기대 해서가 아니라 진솔하고 가치 있는 과거를 글로 옮겨 쓰는 것이며 무다 시기가 지나 70이 되고 80이 되면 하고 싶어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법이다.

필자가 지난 2015년 자전적 회고록 '전반전을 출판한 경험을 놓고 어필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귀한 법이다. 지나 는 유익권을 불러 땀장 쫓겨 먹인 다음 사람의 말을 가르쳐 보라.보신당 장수한테 잡힐 뻔 했던 이야기며 고양이 패거리한테 데 뺏겨, 남자라면 군대 가서 각종 알기 사형이 적힌 책, 여성이라면 자신의 정신적 교양을 쌓기 위한 에세이집이나 취업을 돕기 위한 전문서적 등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빛처럼 빠른 휴대전화에 온갖 정보가 있는데 무엇 하리 책을 볼까. 천만의 말씀이다.첨단 스마트 시대에 공무원 시험이라도 합격하려면 관련 서적과 죽자살자 씨름해야 하고 어느 정도 나아가려면 더 많은 학습한 자세로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삶의 향기를 읽어야 한다.필자 또한 사무실에 빠빠히 쫓겨 서적들이 눈에 익숙하지만 사실 절반도 못 읽는 게 현실이다. 어쩌다 지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했다며 보내 준 책자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선거용으로 제작되어 참모진들이 돈으로 꾸며놓은 냄새가 가득하니 무슨 읽을 맛이 나겠는가.

책을 읽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군가는 심혈을 기울여 저자 이름을 밝은 다음 출판하는 지은이가 있다.원고를 작성한 자, 책을 만드는 자, 읽는 자와 책장에 꽂아두고 다음의 독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가 있다. 휴여 독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더해봐도 50권이 안 된다.인터넷을 뒤지고 스마트폰을 열면 온갖 정보가 넘치는데 언제 한가하게 앉아서 종이 페이지를 넘길까. 더 정확히 자수 하면 게으름이다.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차분히,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 시점에 저자의 마음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역사와 문화, 위인전이나 유명한 소설, 삼국지나 다큐멘터리에서나 볼직한 자연현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으로 책속에 별의 별 세상이 다 있음을 공감하게 된다.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사실 호랑이는 멸종된 것이나 진배없으니 빼놓고, 사람이라면 수명이 길어야 평균 90인데 나고 지라고 어느 정도 돌아볼 시점이라면 적어도 50은 넘어야 한다.

박영/김근식

전라남도,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 개장...산림치유 모델로

전라남도는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흑석산 자락에 '해남 치유의 숲'을 22일 개장, 생활밀착형 산림치유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김병덕 해남군의장,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흑석산 치유의 숲은 50ha 규모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38억 원을 들여 치유센터, 산림치유 프로그램실, 치유정원, 무장애테크로드, 치유숲길 등을 갖췄다. 산림치유 서비스를 이용자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 숲 레크리에이션, 명상, 목공예, 트레킹 △가족 대상 아로마테라피, 다도 △직장인 대상 노르딕워킹, 소리명상 △고령층 대상 치매 예방활동, 차나무수액 복용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흑석산 치유의 숲은 대뇌피질을 자극해 집중력을 높여주는 피톤치드 물질인 알파피넨(α -pinene)을 다량 발산하는 참나무 숲으로 조성됐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숲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근 체류형 숙박시설인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치유와 휴양을 동시에 즐기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이 없는 여타 치유의 숲의 단점을 보완했다.

전남에선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을 포함해 총 6곳의 치유숲이 운영 중이다.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과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이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조성중이어서 도민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숲치유 자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10월 숲치유와 치유음식을 주제로 2021세계산림치유대회가 화순 만연산 치유의숲 일원에



서 열릴 예정이다. 전남 치유의 숲이 가진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을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식 국장은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은 도민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도민이 산림치유시설에서 원과 회복의 기회를 누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경기도의회 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소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으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

를 입음에 따라 화재원인과 소방시설 오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소방 추산 약 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호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화재원인 규명은 현재 소방활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하였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1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09:30 ~ 12:00

1장 소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7층 강당

1주 회
김은미, 김주영, 노용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

1차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2차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3차	·환인일 일과건강 사무처장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 ·이윤관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용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총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6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동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는 추모 추모를 시작으로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매년 이날에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를 숨진 노동자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하루에 한 명은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산재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얻기 위해 오늘 토론회 개최의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기: 인정, 치유, 변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한인일 일과건강 사무처장,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 이윤관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김주영 의원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참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산재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귀한 의견을 모아 향후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양산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양산시의회가 지난 4월 13일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50만톤을 대평양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신속하고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는 자국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역사의 큰 과오가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의 처리는 반드시 한중러를 등 이웃 국가의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제소 등 국제사회와 연계한 강력한 대응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 한반도 주변 해역의 방사능 감시 활동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양산시의회는 차기 회기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강득구 의원, 20일 사격제와 함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토론회'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도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하여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온 경과를 언급하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법원이 자사고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형식적·절차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일반고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 예로, 선택과목 수에서 서울 소재 일반고(은광여고(69개), 수도여고(47개))가 자사고인 세화여



고(45개)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공익 관점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을 옹호한 결과라 비판했다. 향후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10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토론회에서 싸워왔다고 역설하며, 이제 국민들은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명시화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잘 세우기식 경쟁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서열화가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흔히 말하는 명문고 입학에 비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준균기자

전남도의회 장세일 의원,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강력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는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국가경제의 뒷받침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서해안 구간은 제2차 계획부터 제외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성이 부족한 다른 철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제2차 계획부터 계속 제외한 이유를 강하게 꼬집고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장항선(천안~익산)을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41.1km 규모의 노선이며, 총 사업비 2조 3,056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이다.

서해안철도가 구축되면 서해안 지역의 산업·물류·교통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철도네트워크가 완성되며, 환 황해 경제권 개발과 남북을 넘어 유럽까지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과밀, 교통집중 현상을 지방으로 분산되게 유도하고, 대량수출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침체되고 낙후된 서해안 권 경제발전을 이룰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일 의원은 “더 이상 서해안권 국민들이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6월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해안철도 반영은 필수

적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만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종로구, 저출생 대응 '의미' 있는 행보... 아기탄생 축하 나무 심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복합기 시연

저출생 시대 대응책으로 '아기탄생 기념 나무심기 행사', '우리 아기 사진 게재 프로젝트' 실시

종로구가 출생을 국가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으로 보는데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가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소중한 개인'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펼쳐 화제다.

구는 올해부터 아기탄생 기념 축하 사업의 일환으로 첫돌 이전 아기들을 대상으로 '나무심기 행사' 및 '우리 아기 사진 게재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올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약 272,400명이고 합계 출생율은 0.84명이었다. 이중 종로구는 출생아수 약 500명, 합계 출생율 0.52명을 기록했다.

관내 신생아 매년 1,000명 이상 출생하던 2000년대와 달리, 새로 태어나는 아기구민 숫자가 한 달 약 40명 정도로 줄어든 이례는 영아 한명 한명을 일일이 챙기는 방식으로 구정 운영 방향을 선회해 정책 제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아기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첫돌 이전 영아 약 50명에게 종로구가 기념나무와 함께 종묘광장공원을 식수공간으로 제공하는 행사다.

이팝나무, 배롱나무, 매화나무, 청단풍 중 심고 싶은 수종을 선택할 수 있고 식재가 끝나면 아기 이름과 함께 "햇살이 항상 너를 비취줄 거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네"와 같은 가족 염원을 적은 표지판도 달아준다. 종묘광장공원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만큼 가족이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 우리 아이만의 나무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행사는 총 2회에 걸쳐 준비되었으며 이달 10일에 제1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 제2회 행사를 연다.

26명의 아기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출산양육지원금·출생축하용품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본격적인 나무심기에 앞서 간단한 식재법을 배우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구정 소식지 종로사랑과 함께하는 '우리 아기 사진 게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첫돌 이전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가정에서 아기 사진을 구청 담당 부서로 보내면 종로사랑에 실는 방식이다.

제출 서류로는 아기 탄생 축하제 신청서, 아기사진 1매, 태명, 부모 축하글 등이 있고 신청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면 같은 달 25일 종로사랑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지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종로구의 '아기 탄생 기념 나무심기 행사'와 '우리 아기 사진 게재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구성원인 아동의 성장을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고, 저출생 문제 완

화의 촉매 역할을 할 '돌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영종 구청장은 "영유아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라며 "갓 태어난 우리 구천사들을 하나하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종묘의 키 작은 나무들과 소식지 사진을 눈여겨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일 구청사 후문서 구 환경정책위원들과 함께 기기 시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20일 구청사 후문에서 열린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복합기 시연회에 참석했다.

EM 복합기는 지름 0.9m, 높이 1.8m 크기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방선균 등 유용 미생물 80여종을 모아 배양(발효)하는 기기다. 구는 지난 19일부터 EM 발효액 무상 보급을 시작했다.

발효액이 필요한 주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받아 가면 된다. 용기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2리터(L) 들이 페트병(생수병)을 준비해야 한다. 회당 1.8L, 1인당 3병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발효액 생산량은 주당 500L(0.5톤)다. 공급량 소진 시 미생물 배양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 공급을 재개한다. 수요량 추이에 따라 구는 배양·공급주기를 적절히 조절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외 신규 위촉된 구 환경정책위원 3명이 함께했다. 구 환경정책위원은 18명(당연직 5명, 위촉직 13명)으로 구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EM 발효액은 화초 키우기, 냉장고·신발장 청소, 머리 세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EM 활용률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그린리더(Green Leader) 육성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송파구민청원, 30일로 연장...구민 참여 기회 확대

동작구,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명함 제작 지원

구민청원 시행 2년 맞아 운영 방법 일부 개선

남성역 골목시장, 신대방1동 골목시장 일대 200여개 점포 소상공인 대상

송파구는 구민청원 시행 2년을 맞아 제도 운영 방법을 일부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송파구민청원은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 2년 간 구 홈페이지 구민청원 창구에는 총 3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 중 44건은 청원으로 등록되어 구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고, 266건은 일반 고충민원 또는 질의사항 등으로 분류되어 답변이 처리 되었다. 주요 청원으로는 '석면관련 조례제정 요구'가 있다. 10일간 1,287명의 지지를 받아 제1호 청원이 되었으며 구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547명의 지지를 받은 '송파책박물관의 도서관 전환 요청'은 청원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정책제안으로 송파책박물관의 운영 방향이 구민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구는 2년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지난 19일부터 기존 청원 성립 기준을 늘려 구민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일 동안 1,000명 지지'에서 지지기간이 '30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청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구는 송파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원제도를 홍보하고, 구민 입장에서 청원창구 이용이 편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병행해 청원

제도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2년간 구민청원제도를 통해 구민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청원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춰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동작구가 비대면 온라인 소비시장에서 골목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명함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 거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소비패턴이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먼저, 남성역 골목시장, 신대방1동 골목시장 일대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개인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희망하는 SNS채널을 선택하고 이와 연계된 온라인 플랫폼인 모바일 명함을 제작 지원한다.

모바일 명함은 QR 코드가 생성되어 SNS채널로 연동 해 점포 및 상품 소개, 주문, 예약,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상점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 크리에이터와 1:1 상담으로 맞춤형 모바일 명함을 제작한다.

이와 함께 전문 쇼호스트의 라이브 커머스 홍보 및 QR디렉토리 북 배포를 통해 상점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유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노린다.

또한, 소상공인 스스로 모바일 명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함 업그레이드 등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과 디지털 큐레이터를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드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상점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명함 제작·지원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기대한다"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손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접촉 결제방식 도입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12월 '성대시장 장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달 ▲남성사계시장 ▲상도전동시장 ▲남성역골목시장 ▲성대전동시장 25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룸몰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성북구, 취약시설 대상자·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백신 접종

은평구, 녹번·응암동 중학교 설립(이전) 주민 서명운동 추진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보건소 내소 접종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명운동 진행...주민 다수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

서울 성북구가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학생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관내 특수교육·보육 종사자, 그리고 의심환자와 접촉할 우려가 높은 학내 보건·간호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접종을 시행한다. 이 중 접종을 희망하는 242명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6일 기준 113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오는 27일까지는 또한 집단감염과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취약시설 입소자·이용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접종팀과 시설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접종하는 접종지원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동시 시설 내 종사자 및 거동가능자에 대하여 보건소 내소접종도 병행하고 있다.

관내 취약시설 중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개소,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노숙인거주시설 5개소가 접종 대상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개소는

접종지원팀을 통해 접종하며,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숙인거주시설은 보건소방문접종과 내소접종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취약시설 접종희망자 173명 중 96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성북구보건소에서는 장애인노인보훈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병의원 및 약국종사자, 투석환자에 대한 접종을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고대안암병원, 서울척병원, 성북우리아이들병원)과 위탁계약 체결했다. 해당 대상자는 사전예약(온라인, 전화, 방문)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접종 확대에 따른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강성원/기자



은평구는 녹번, 응암 지역 개발로 중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통학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서부 1,2학교군 중학교 불균형 배치로 인한 지역 간 부의부 빈익빈 편차로 오랜 기간 학생들이 통학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녹번, 응암 지역개발로 8,800여 세대 공동주택이 신규 입주하였고, 향후 응암1구역(879세대)과 응암4구역(358세대) 추가 입주도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은평구는 주민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중학교 설립 요구가 소수의 주민의견이 아닌 다수의 주민의견임을 전달해 중학교 설립(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서명운동은 은평구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녹번·응암동 중학교 설립(이전) 추진협의체를 통해 진행하

며, 추진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녹번·응암1·2동 인구수의 약 30%인 3만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녹번동, 응암1동, 응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다.

조상순/기자

김미경 구청장은 "그동안 녹번동, 응암동 지역에 중학교설립을 위해 은평구와 함께 노력해 주신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다함께 참여하여 중학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인천시, 지적재조사 국비확보 특·광역시 1위

지적재조사 공모사업 선정, 국비 6억 원 추가 확보, 총 16억 6천만 원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공모한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는 행정구역 동 단위 또는 1,000필지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적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맞지 않고 이웃한 타인 경계를 침범해 사용하는 다수의 불합합 토지를 일시에 정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양구 선주지동과 서구 백석동·시천동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를 일시에 정비해 지적도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

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년까지 국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2,01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1년에는 16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19개 지구 6,862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지적은 정밀도가 높아 경계분쟁

이 발생하지 않고,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된다

정중후 시 토지정보과장은 "인천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인천형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중 3년 연속으로 사업 추진실적 전국 1위와 함께 국비확보 또한 특별·광역시 중 1위의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이뤘다

김종남/기자



강화군, 갑곶제1공영주차장 준공

만성적 주차난 해결, 침체된 지역 상권 활력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주택지역에 연이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군은 21일 유천호 군수를 비롯해 신등상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곶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무료 운영에 들어갔다.

갑곶리 일대는 강화읍의 대표적인 주거 밀집지역으로 일찍이 개발되었으나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해 부지면적 4,198㎡에 차량 11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또한, 24시간 작동하는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 주차장 보안을 강화하고, 영염읍 화물 차량 등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군이 수시로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부동산과 인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주차장 준공으로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도심과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등에 주차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수도권 광역지자체 박물관 협력망 구축 MOU

전시, 교육, 유물관리, 학술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진행 및 상호 교류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은 수도권 광역지자체 박물관을 대표하는 경기도박물관 및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함께 4월 20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수도권 광역지자체 박물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사 및 고대사 중심의 한성백제박물관, 중세 역사 중심의 경기도박물관, 근대역사 중심의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전시, 유물, 학술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각 기관의 특성을 상호 보완하면서 행사를 공동 진행하는 등 박물관차원의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성백제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이 올해 7월말 개최하는 경기 남부권 마한·백제 유적 발굴성과 특별전 관련 학술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경기도박물관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해 온 경기-인천 학술심포지움에도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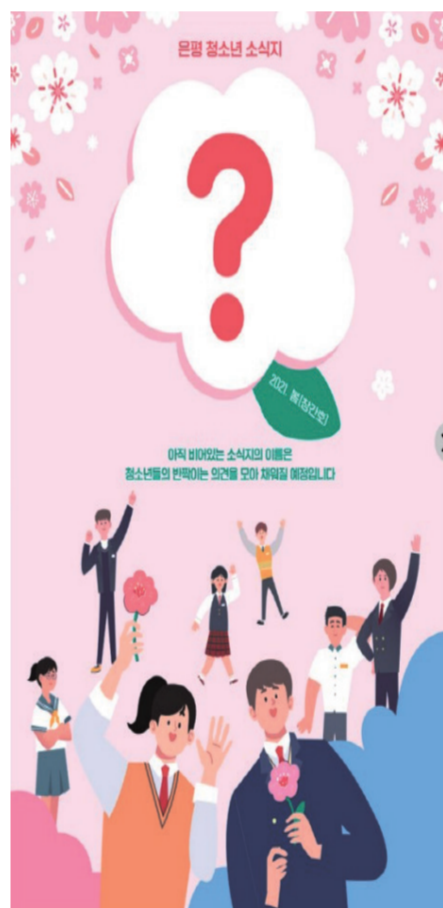
력하고, 향후 3개 박물관 공동의 온라인 전시·교육 및 온라인 학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성백제박물관 김기섭 관장은 "소통과 협력의 시대에 광역지자체 박물관들이 서로의 장점·강점을 적

극적으로 나누며 협력한다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청소년 프로그램과 행사를 한눈에... 은평구, 청소년 모바일 소식지 제작



은평구는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다양한 청소년시설의 주요 행사·일정 등 소식을 한데 모은 은평 청소년 모바일 소식지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작했다.

2021년 봄 장간호에는 관내 구립 및 시립 청소년시설 10개 기관의 주요 사업홍보와 행사 일정 등을 안내하면서 소식지 화면을 통해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 프로그램 접수메뉴로 바로 링크 연결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될 예정이며 3분기 소식지는 청소년들이 직접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여 소식지 제목도 정하고 시설 탐방, 인터뷰, 이벤트(퀴즈) 등 청소년 의견을 모아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18세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홍보단을 모집하여 청소년 시설 사업조사 및 기사 작성 등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궁금해도 여러 기관의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이 번거로웠는데, 은평 청소년 모바일 소식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보공유 및 활동참여 기회를 높여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는 관내 청소년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 "은평청소년 소식지" 코너와 관련링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시민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순/기자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온라인으로 개최

개원 25주년을 맞은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4월 23일 오전 10시, 기념식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 "인천연구원"채널에서 방송한다.

25년을 연구원과 함께 한 창립 멤버 이용식 원장의 개회사를 필두로, 박남춘 시장과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국외 교류기관장, 전임 원장, 퇴직 직원 등이 보내온 축하영상메세지 상영이 준비되어 있다. 이후에는, 공모전과 도서전 등의 부대행사 현장스케치 영상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토크콘서트에는 제3·4대 이철규 전임 원장, 최원식 전임 이사(인하대학교 인문학부 명예교수), 이숙진 퇴직 연구위원(前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초청인사로 출연한다.

인천연구원은 25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원내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이를 해결해 갔다. 첫 번째는 인천아트 플랫폼 인천서점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연구원 발

간 도서전'을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연구원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공모전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홍보영상 공모전'과 '캐릭터&일러스트 공모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는 전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조성한 기부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회장 심재선)에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네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무렵, 「인천21세기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의 자치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시민 여러 분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지내 온 지난 25년을 성찰하고 새롭게 각오를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을 갖게 되었으며, 임직원 모두가 '앞으로의 25년, 인천광역시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연구'가 갖는 그 무게감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김종남/기자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2021. 4. 23(금) 10:00~11:30

▶ 인천연구원 유튜브 채널

개회식 | 기부금 전달식 | 공모전 시상식 | 토크콘서트

유튜브 구독 & 실시간 댓글로 '25주년 기념식 축하 메시지'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하여 50명께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인천연구원 THE RESEARCH CENTER

인천 서구,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복지유공자 15명 표창 수여

인천 서구는 지난 20일『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는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해 귀감이 된 모범장애인 7명,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각 분야의 유공자 8명 등 장애인복지 유공 표창 대상자로 15명이 선정됐다.

모범장애인 표창 수상자는 ▲이경임 씨(인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박귀월 씨(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구지회) ▲김종연 씨(인천시각장애인복지회 서구지회) ▲송이보 씨(인천농아인협회 서구지회) ▲김윤식 씨(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서구지회) ▲문정숙 씨(큰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장정석 씨(인천서구청장애인총연합회) 7명이다.

또한,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증진에 힘쓴 유공자로 ▲최소정(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서구지회), 박은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서구지회) 씨 ▲정의진 씨(소방의집) ▲양창렬 씨(지심피너치) ▲서영운 씨(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노수민 씨(한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앞장선 송해영 씨(서로포



타리클럽) ▲변호사로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무료법률 상담과 발달 장애인 일자리 연계에 앞장선 장현우 씨(한국복지나눔)가 수상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은 지난 1981년부터 매해 4월 20일을 국가에서 지정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 의 재할 의욕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이날 서구는 인천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를 지원받아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 '인천

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최종윤 부구청장은 "이번 표창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서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0개소(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태는 다음과 같다.

[가공업체] OO 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 [음식점] OO 음식점은 미국산 콩

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전남 소재 음식점)

[제조업체] OO 제조업체는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 및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표시(경남 소재 제조업체)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양양군, 스쿨존 불법주정차 절대 안돼요!

양양군이 속도경찰서와 함께 21일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평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해 평소에도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어 왔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 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상시 단속과 계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상습 불법주정차, 스쿨존 일대

고질적 위반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단속한다.

또한 스쿨존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 신고만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 화면 상단의 신고유형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와 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고양시, 유흥시설 단속...방역지침 위반업소 4개소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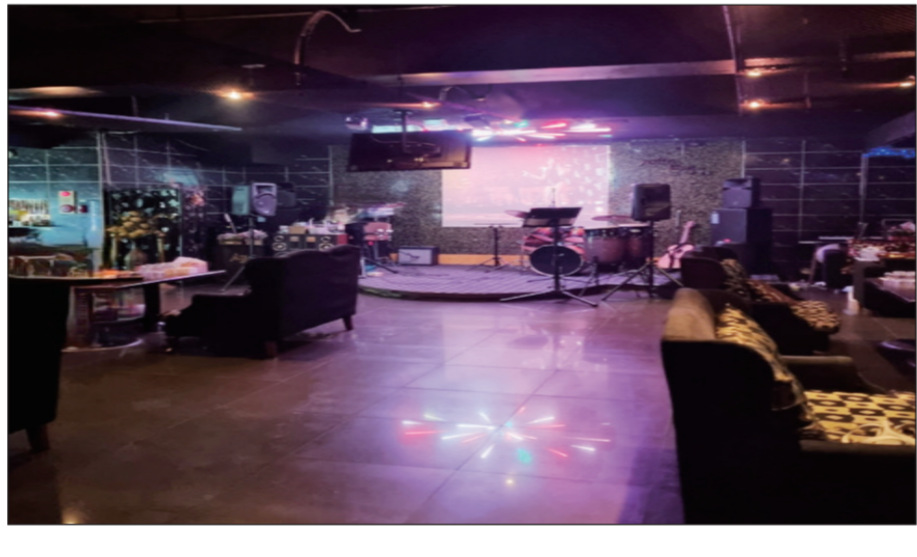
위반 업소에 무관용원칙 적용해 엄벌 조치

고양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20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시청,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집합금지 이행 실태 및 호프주점, 라이브 카페 등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한영기기자



경상남도, 실내체육시설 코로나 방역실태 합동특별점검

경상남도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확산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확산 증가세가 우려됨에 따라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541개소 체력단련장업을 우선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군별 자체적으로 전수점검으로 실시하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업이 소재하는 시 지역은 경남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총괄하는 4개반이 표본 합동점검반이 이용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체온측정 여부, 운동 중 마스크 착용 여부, 실내 음식물 섭취 여부, 시설 내 적정 인원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체력단련장업 사업주에게 증상심자 출입제한과 운동 중 신체접촉 및 대화 최소화 등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

남궁영기기자

김광철 연천군수 코로나 대응 현장점검의 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

연천군은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전 군민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연천군보건의료원 내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 약 4,324명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83명 등 총 4,507명에 일 평균 400명을 목표로 6월 3일까지 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연천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 이완 등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현장방역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매주 취약 시설에 대한 강화된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22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 따른 첫 대상지로 연천보건의료원 내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의 진행단계에서 점검과정까지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접종대상 어르신들과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예방접종을 받는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방접종

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불안한 마음이 다소 있었으나 군수님이 직접 현장에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많이 진정되었고 예방접종을 맞고 나니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곧 온다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면역집단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 우리군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정중한 애국자는 여기 계신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이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사함을 드린다. 코로나19가 빠른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연천군은 이날을 계기로 현장점검의 날을 매주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인천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검단신도시 도로 추진상황 점검

현장 방문해 단지 내·외 주요 도로 추진상황 점검

인천광역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4월 22일 오후 6월부터 첫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검단신도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6일 안영규 행정부시장의 기반시설 점검에 이어, 단지 내·외 도로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신도시 입주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최대의 계획 신도시로서 2023년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7만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1단계 6개 블록 7,976세대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이날 조택상 부시장은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 홍보관에서 단지 내·외 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수도권 매립지 연결도로인 드림로와 지구 내 간선도로(대로2-78호선) 연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주주민들이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임시 도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한국도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임시 도로 개설 공사기간을 6월까지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1단계 단지 내 주요 도로는 18개 노선으로 올해 6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단지 외 도로는 철도(검단연장선) 1개 노선, 광역도로 5개 노선, 일반도로 2개 노선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주요 기반시설인 단지 내·외 도로는 출·퇴근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기 단축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21일 과수화상병 발생 및 지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과수화상병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수화상병 사전 약제방제 이행상황과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대책확인 및 토론시간을 가지고, 사과·배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집중예찰 및 2차 방제약제 방제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기준 전국 5개도 15개 시·군, 744과원(394.4ha)에서 발생하였으며, '19년(188과원/132ha) 대비 발생 과원수 295.7%, 발생면적 199.9%가 증가되었다. 특히 문경시와 인접한 충주·제천 사과과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487과원, 전체 발생과원의 65.5%)한 상태로 문경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관내 사과와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3종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배의 꽃이 전체 80%이상 개화 5일 후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를 살포하고, 2차 방제약제 살포 10일 후 3차 방제약제인 육싸이클린을 살포해야한다. 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반식기자



인천 동구, 빗공해 바닥조명 정비 및 불법간판 양성화 사업 실시

인천 동구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빗 공해 바닥조명 광고물 정비 및 불법간판(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눈부심 등 보행자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바닥조명(전자빔 등을 이용한 그림자조명)을 올해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보도의 노면에 전자빔 등으로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표시하는 바닥조명 광고물은 자살예방·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공공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용 광고는 금지된다.

한편, 구는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광고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양성화를 진행한다. 불법간판 양성화 사업은 옥외광고

물범을 위반하여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 기간 만료(3년)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광고주의 신고 또는 허가 신청만으로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 정비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허가·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니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하동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경남 하동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 장애물 설치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군민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신고하면 되고, 포상금은 담당자의 현

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동석 안전지도담당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광명시, '청소년폭력예방' 보호자 및 실무자 교육 강화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일 광명시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제3차 청소년폭력예방교육'을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보호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관계기관 실무자,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변성숙 변호사(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 담당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내용과 사안 처리에 대해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학교폭력 조기 대응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와 보호자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잘 이해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중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올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교육을 신청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초기 대응방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보호자는 "강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명시청소년폭력예방담당기구는 2021년 광명시 '평생학습의 해'를 맞아 보호자 및 실무자 외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특강을 매월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하여 「밖에서 상처받은 우리아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듬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경기도, 22일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탄소중립 캠페인, 소등행사 실시

고양 등 9개 시 지역 주민 참여 행사, 도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 병행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 환경보호의 날'이다. 경기도가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알리기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 회복: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고양, 부천, 안양, 파주, 광명, 군포, 이천, 오산, 의왕 등 9개 시에서 온라인 행사 위주로 열린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는 24~28일까지 시와 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가 참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안양시에서는 22일 시 공무원과 산

하 공공기관 전 직원, 안양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출근하는 '지구의 날 기념 걸어서 출근하기'와 '일회용품 안 쓰는 하루 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광명시에서는 22일 오후 4시~6시 시민과 기후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방안, 해결책 등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콘서트는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 밖에 '환경위기 시계 알림'(파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행동 게임라 이벤트'(군포), '공유자전거 무료 이용 행사'(이천), '저탄소 생활실천 나무심기 행사'(오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챌린지(두발로) 추진'(의왕)

등의 캠페인이 마련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소등행사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 간 전국에서 열린다.경기도에서는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428곳, 공동주택 321단지 24만 4,410세대, 삼성전자디지털연구소, 화성행궁과 시화호 주력발전소 달전망대 등 지역 상징물 14곳이 참가해 실내등·건물 경관조명·외벽 전광판 소등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에 동참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변화주간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의정부시, 부대찌개 골목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



의정부시는 경기도 주관 2021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공모사업 먹거리와 체험 연계 테마 특화거리 분야에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은 역사·문화·체험·맛집·생태·레저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한 골목(거리)을 발굴, 관광 상품으로 개발·육성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사업비 7천만 원과 컨설팅·교육·홍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는 부대찌개골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

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제작 및 기존의 시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등 골목 리브랜딩을 통하여 부대찌개 골목을 경기도 대표 관광테마 골목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선정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오산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오산시가 관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4월 26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오산시 관내 등록 장애인은 3월말 기준 8,891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903명(9.8%)으로, 시청 노인장애인과 6개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전담공무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현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각 조사단은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현장 조사시 장애인 인권침해 정황이 의심되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해 긴급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독거가구 및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피해를 찾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의왕시, 김상돈 시장 '의왕 에코 플로깅 챌린지' 선언

김상돈 의왕시장은 21일 봄을 맞이해 레슬레파크 소무대에서 '의왕 에코 플로깅 챌린지'를 선언하고 왕송호수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플로깅'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의왕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두발로 챌린지'와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플로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발로 챌린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챌린지'는 단체와 기업이 플로깅을 실천하고 다음 챌린지 대상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 받은 단체와 기업은 10일

이내 플로깅을 실천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상돈 시장은 "플로깅은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운동으로, 이번 선언이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실천운동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의왕 에코 플로깅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시장은 플로깅 '릴레이 챌린지'의 첫 단체와 기업으로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주)시몬느를 지명했다.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봉호 상임회장은 "이번 플로깅 챌린지를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까지 플로깅 활동과 기



후 위기 비상행동(음식물 남기지 않기, 내 용기로 음식물 포장) 참여 사인을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종균/기자

구리시, 2021년 '주민 생활 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1인 가구 복지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구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1년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에 선정돼 1인 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며, 구리시를 포함한 29개 단체가 선정됐다.

구리시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강화 필요성에 따라 「혼자라도 괜찮아」 살기 좋은 구리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 신청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으로

는 구리시가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결과로 시는 국비 4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위험 1인 가구에 스마트플러그 설치로 전력량 소비 및 조도 변화 감지로 위험 감지 시민·관 협력 안부 확인을 통한 안전 관리사업인 '스마트 돌봄 플러그 솔루션 사업' ▲먹거리 등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드림 냉장고 사업'을 8개동에 확산 추진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방문과 접촉의 한계를 극복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으로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추진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안부 확인이 가능

하게 되었다"며 "민·관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분야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안성시, '사계절썰매장' 당신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응원합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성시사계절썰매장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블루' 완상을 지속적으로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코로나블루 극복 응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원 프로그램은 썰매장 공식 인스타그램(4season_sled)을 통해 진행되며, 썰매장 계정을 '팔로잉' 및 이벤트 게시물 2건의 '좋아요'를 누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벤트는 썰매장 공식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썰매장에서 시민들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진행했던 비대면 이벤트 3가지 이상을 댓글로 남기고, 나만의 특별한 '코로나블루' 극복법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미션으로 주어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인증샷을 썰매장 공식 계정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발송하면 응모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하여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사계절썰매장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최갑선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시민들의 코로나블루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썰매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이벤트인 '아무썰매 챌린지', '청렴 가로세로 퀴즈', '만만한 이벤트', '랜선 릴레이 3step' 퀴즈 등을 시행하여 고객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는 시설 내부 공사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휴장중이다.

최근수/기자



시흥시, 시흥혁신교육지구 '동네언니 프로젝트'

시흥시가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학교교사와 마을교사 180여 명으로 구성된 '동네언니'를 결성하고, 초·중·고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담은 8개 동 단위 특화된 프로젝트식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동네언니'는 마을교사와 학교교사가 같이 기획·실행하는 '협업' 누가 무엇을 가르칠지 동네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동네 공간과 사람을 바꾸는 마을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1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며, 참여 교사는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 정왕교육과정(학교 및 지역연계 다문화 교육) △ 배곧·정왕교육과정(AI시대의 인공교육과 생명존중 교육) △ 월곶교육과정(월곶의 지역특색이 담긴 생태교육) △ 신천장곡교육과정(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 능곡·군자교육과정(소프트웨어 블렌디드) 등이 있다.

개발된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수업

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최정무/기자



평택시문화재단, 한국-스웨덴 공동제작 어린이 난버벌 공연 '네네네'

춤, 마음, 놀이, 소리를 활용한 난버벌 공연

평택시문화재단은 한국-스웨덴 공동제작 어린이 공연 '네네네'를 오는 5월 29일 평택 서부(안중)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네네'는 어린이 공연 전문 국내 단체인 (주)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제브라댄스(ZebraDance)가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공동 창작, 제작한 첫 어린이공연이다.

동화작가 요한나 콘세이오의 그림책 '과자가게의 왕자님'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됐으며, '행복'이라는 특별한 화두를 독특하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풀어낸 공연이다. 공연은 아침 이슬에 깨어난 숲속 동물들의 퍼레이드로 시작해서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며 숲속 동물, 자연과 교감한다. 춤과 마음, 놀이, 소리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이 없이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네네네'는 2021 서울 아시테지 관객 인기상 수상, 2020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선정작의 영예를 안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로 선정되어 평택시문화재단 기획공연으로 선보인다.

국내 창작진으로는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의 김민정 연출, 영화 '말아톤', '광해'의 음악을 책임진 김준성 음악감독이 함께하며, 스웨덴 팀의 안무가는 애나 존슨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어린이극을 보여준다.

김남주기자



안양시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2021년 상반기 지원협의회 개최

안양시청소년재단(이사장 최대호) 산하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는 4월 16일 2021년 상반기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는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을 심의 및 결정하고 지역 연계 지원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 기관장, 지자체 담당 공무원,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 전문가인 필수위원과 지역 관계자인 일반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지원협의회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석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

동회, 안양근포의왕친환경급식시민행동 및 안양시소상공인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지원협의회는 2021년 지원협의회 위원장 선출, 운영규정 심의 및 의결,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계획 보고를 통하여 2021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 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안양시석수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교 1학년부 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및 창의융합역량 강화 활동 등 개별 맞춤형 역량 강화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원종규기자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찾아가는 취약계층 급수·위생설비 점검 추진

가평군 상수도사업소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급수설비의 점검·교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취약계층 점검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의 불편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 팔을 걷어 붙였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점검 서비스'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및 장애 가구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구를 사업소 소속 점검원이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수도꼭지 누수 점검, 샤워기 교체 및 노후 수도 시설 불편해소 등 수도와 관련한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수도서비스 사업이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추진되는 '찾아가는 취약계층 점검 서비스'는 수도꼭지 교체 등의 수도설비를 소외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그동안 노후 옥내급수관 누수로 수도 요금 과상정 및 경제적 부담, 과남·장기 체납, 누수감면(요금 손실) 등 악순환의 문제를 수도설비 수리 지원으로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가평군 상수도사업소는 계량기 점검원이 직접 점검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수용가의 시간대별 수도물 사용량을 파악하는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난침침 지역, 취약계층 및 노후 계량기 가구 등 기존 상수도 검침 환경에서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선진화된 수도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평군 상수도사업소는 '찾아가는 취약계층 점검 서비스'를 통하여 노후된 수도설비를 점검·교체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급수관리원(검침원)을 통한 신청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소는 취약계층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수도와 관련한 취약계층의 불편한 생활 민원을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외된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군민의 수도시설 불편 해소 및 선진화된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 희망세대 모집

290세대 선착순, 설치비

80%지원...매달 6~7천원 전기료 절감

고양시는 에너지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분산형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실시, 이달 21일부터 참여 세대를 모집한다.

미니태양광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 옥상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설비다. 미니태양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1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했다.

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290세대에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태양광 모듈 출력 향상에 따라 기존 500W에서 700W까지 지원용량을 확대했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330W 기준 평균 62만원으로, 설치금액의 80%인 약 49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월 평균 300~5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330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 발전량은 35kWh으로, 전기요금 약 6천~7천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희망 세대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시가 선정한 시공업체 중 설비용량, 설치유형, 자부담금 등을 고려해 참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제출서류는 해당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시에 제출하게 된다.

이용진 기후에너지 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정에너지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양주시,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양주시는 오는 2022년 완료될 목표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49억5000만원을 중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3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수도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함으로써 수도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은 실시간 수압계, 지상에서 관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스마트 관로시설 정보인식체계, 수질계측

기, 지능형 계량기인 스마트 미터링, 오염물질 자동 배수장치인 자동드레인 설비, 재염소투입 설비, 정밀여과장치, 관세척 작업, 각종 수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유량계, 전문수질검사요원이 가정에 방문하는 워터코디·닥터 서비스 등 10개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유량, 수압, 잔류염소,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자동으로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개량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도물 공급과정 관리 강화로 수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크게 절감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에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적수 및 이물질 등 수질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경북도, '버들치' 대량생산 양식기술 개발한다.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는 1급수 지표 어종인 '버들치'의 새로운 양식어종 개발을 위해 대량 종자생산 시험·연구에 도전하여 식품개발 등 내수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내 주요 하천 등에 감소하는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버들치' 대량 생산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시험·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0일부터 첫 인공채란으로 30만개 알을 부화하여 자치어를 양식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10만마리 정도를 도내 주요 하천에 방류하는 등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버들치'는 몸길이 8~15cm 정도까지 자라고, 전 지역에 서식하며, 계곡같은 깨끗한 곳에 살아가는 1급수 지표어종이다. 식용 시 뼈를 추릴 필요가 없고, 살이 부드러워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별미로 kg당 20,000~30,000원에 거래되는 고급어종이다.



현재 식용으로 이용되는 버들치는 매향탕, 튀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일부 관상어로도 이용되고 있지만 주로 하천 등 자연 포획에 의존하고 있어 그 생산량이 불안정하고, 한정되어 버들치를 이용한 관련 산업이 정체인 실정이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우선 버들치의 사료효율 및 성장도 시험으로

대량 종자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시험방류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고, 해양수산부에 버들치를 방류 어종으로의 지정을 건의하여 종자생산 산업의 활성화와 매향탕, 튀김 외의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 등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내수면 산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문성준

원장은 "버들치를 비롯하여 우리 하천 고유의 수산자원인 토속어류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성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내수면 6차 산업화 소득 증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김천시, '20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김천시는 지난 20일 김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6개 수행기관의 세부사업 설명과 수행기관별 상담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개별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 사업은 3개 프로젝트에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기업지원 150개사, 환경개선 43개사, 직업훈련 324명, 창업지원 27개사, 고용서비스 1,470명, 일자리창출 1,379개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 회복과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퇴직자와 고용변동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 △지역 고용안정 거버넌스 운영 △통합고용 서비스 체계 구축 △퇴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을 위한 핵심기능인재 양성 △스마트 모빌리티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 △전자제품 고도화 기술지도센터 운영 △업종전환 및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지원 △생산업종 증대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 모빌리티 전장·소재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 및 벤처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전략사업과 기업을 연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봉화군 석포면, 경제·민생·치안 모두모두 "봉화 퍼스트"

봉화군 석포면은 지난 20일 오후 3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허성희 봉화경찰서장과 기관단체장, 이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이장회의겸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허성희 봉화경찰서장은 석포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면민 서로서로 지키고 주의하고 협조하는 "치안 봉화 퍼스트"를 당부하였고,

김기연 석포면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앞장서 봉화 퍼스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길 부탁하는 "경제 봉화 퍼스트"를 역설했다.

이에 김영분 이장협의회 회장은 "봉화 퍼스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장협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경찰서와 행정기관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민생 봉화 퍼스트"를 부탁했다.

한편, 봉화 퍼스트는 2019년부터 봉화군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봉화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한반식기자



대구 남구청 청사 별관시대를 열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는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경제과와 공원녹지과 2개 부서를 남구청 옆 KT봉덕빌딩 9층을 이전하여 4월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에는 현재 20개부서 463명의 공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복지·관광·교육 등 각 분야 업무증가와 그에 따른 인력보강 등으로 청사의 업무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남구는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구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남구청 옆 KT봉덕빌딩 9층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시장경제과와 공원녹지과를 별관으로 이전한다. 본관도 부서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구청사는 1971년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2008년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한차례 시행하였고 2020년 안전진단결과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아 신속의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남구는 안전성과 업무효율 면에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연차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당장은 별관을 개소하여 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구민 중심의 열린 봉사행정 실현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갖춘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달서구,애물단지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 추진

대구 달서구는 21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본부장 진병복)와 '플라스틱 Free 확산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3일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달서구는 아이스팩 수집·운반·세척·수요처 발굴 등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는 아이스팩 보관 장소 및 수거함을 제공,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협조하는 지원을 한다.

달서구는 젤 아이스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아이스팩 모다요!' 사업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아이스팩 충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되고, 소각이나 매립도 어려워 발생량을 억제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이 비닐로 포장된 젤(고흡수성수지) 형태의 세척된 아이스팩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아이스

영양군 입암면 건강마을, 건강생활 실천 공모전 입상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 건강생활 실천 사진·동영상 공모전 입상의 쾌거

영양군 입암면 건강마을은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경상북도가 31개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건강마을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실천 이벤트」에 참여해 세 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공모전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코로나19 예방으로 개발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모하고 이를 시상하였다.

영양군 입암면 건강마을에서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한 건강생활실천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모전에 참가하였으며, 입암면 흥구리 최혜선(대상), 입암면 신구2리 김미숙(최우수상), 입암면 대천리 조순녀(우수상)등 세 팀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신체활동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 입상작은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지원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문경시, 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중앙-지방 합동 점검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원천 차단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21일 과수화상병 발생 및 지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과수화상병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수화상병 사전 억제방제 이행상황과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대책확인 및 토론타임을 가지고, 사과·배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집중예찰 및 2차 방제약제 방제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기준 전국 5개도 15개 시·군, 744과원(394.4ha)에서 발생하였으며, '19년(188과원/132ha) 대비 발생 과원수 295.7%, 발생면적 199.9%가 증가되었다. 특히 문경시와 인접한 충주·제천 사과과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487과원, 전체 발생과원의 65.5%)

한 상태로 문경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관내 사과와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3종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배의 꽃이 전체 80%이상 개화 5일 후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이스를 살포하고, 2차 방제약제 살포 10일 후 3차 방제약제인 옥사이클린을 살포해야한다. 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반식기자



팩 4개당 종량제 봉투(100) 1장으로 바꿔준다. 다만, 물이 들어있거나 종이재질로 된 아이스팩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된 젤(고흡수성수지) 형태의 아이스팩은 재활용 작업을 거쳐 관내 식품업체 및 전통시장에 무상으로 전달된다.

한편, 달서구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일환으로 폐건전지10개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2개)나 종량제 봉투(100) 1장)로, 종이팩1kg은 화장지(2

롤)나 종량제 봉투(100) 1장)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탈플라스틱 사업을 펼치고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부산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 운영 시작

취업특강, 이미지 메이킹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 심층상담 및 집중알선, 심리상담 등 지원

부산시는 4월 2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전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EXCO 제1전시장 1층에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운영기관: 부산경제진흥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최대 규모 일자리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부산시 브랜드: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사업을 통해 총 12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전직(예정)자 및 일반인(취업 희망자)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등 시는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부산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BEXCO,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특강, 이미지 메이킹(정장대여, 면접메이크업 등)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취업 심층(개별·집단)상담 및 집중알선,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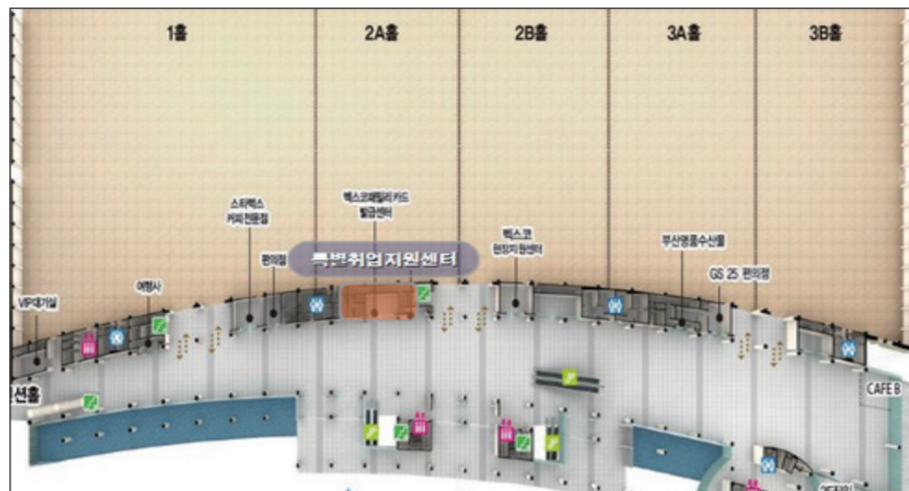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는 부산시 관광·마이스업 분야의 거점인 벡스코에 설치하여 전문 직업상담사 채용(6명) 및 심층상담을 위한 집중 상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상담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 현장방문(벡스코 제1전시장 1층) 또는

전화 문의로 가능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뿐만 아니라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주력 산업인 여행·관광·마이스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상황에서 이·전직(예정)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부산지방고용청,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산경제진흥원과 지역 내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함양대봉산휴양밸리, 100% 인터파크 사전예매제 흥행 대박



지난 21일 개장한 함양대봉산휴양밸리가 100% 인터파크 사전예매에 돌 불구하고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함양군은 개장 이틀날인 22일을 기준으로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터파크 예약자가 몰려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과 쥘라인 티켓이 전량 매진되는 등 흥행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봉스카이랜드의 경우 예매자 뿐만 아니라 국내 최장 길이의 모노레일과 쥘라인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와 복새물을 이루고 있어 군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통제를 위해 따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KBS 인기예능 1박2일을 비롯해 각종 방송에서 핫이슈로 다뤄진 대봉산휴양밸리가 전 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개장식으로 더 큰 관심몰이가 된 것이 흥행

의 주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대봉모노레일·쥘라인·대봉캠핑랜드 등 대봉산휴양밸리의 전 시설은 100% 인터파크 사전예매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발권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매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를 모르고 현장을 방문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①인터파크에 접속해 대봉스카이랜드를 입력 후 조회 ②스카이랜드 이용권 및 날짜 선택 후 예매하기 클릭 ③원하는 시간대 및 좌석 수량 선택 ④원하는 권종을 선택하여 예매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터파크 고객센터나 대봉스카이랜드 안내실, 대봉캠핑랜드 안내실로 전화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광용기자

울산시, '제3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울산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3기 울산 100인의 아빠단'을 오는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 울산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 국민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0년 '제2기'활동을 수행했다.

'제3기 울산 100인의 아빠단'은 오는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부터 25주간 매주 분야별(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미션을 수행한다.

멘토 아빠의 육아 노하우 소개, 초보아빠 탈출 육아 특강, 아빠와 함께하는 체력 프로그램(가을소풍)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 아빠를 선정하여 상패와 소정의 보상도 제공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 진행

된다.

모집 대상은 3~7세(2015년~2019년생) 자녀를 둔 초보 아빠로,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메시지를 울산 전민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울산시 초보 아빠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김해강소특구 연구소기업 22개사 전국 최다

이달 (주)테라프릭스, (주)휴엔씨네이처 2개사 추가 등록

김해시는 지난 6일자로 의생명·의료기기 김해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22개사가 추가 등록해 총 22개사가 됐다.

이는 전국 12개 강소특구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소기업 등록이다. 이번에 김해시에 등지를 둔 2개 연구소기업은 (주)테라프릭스, (주)휴엔씨네이처이다.

(주)테라프릭스는 (주)킵터허들의 자회사로서 그루밍족을 타겟으로 한 남성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1월 경희대학교의 '아스트라갈로시드 IV'를 포함하는 탈모 방지 또는 발모 촉진용 조성물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다.

올해 남성 울인원, 선케어, 청결제 등 남성 특화된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해 사업화할 계획이며 향후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

기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한다.

(주)휴엔씨네이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주)휴엔씨의 자회사로 선문대학교(충남 아산시)와 함께 남해안 바닷가 경관을 해치고 악취까지 내는 구멍갈파래(해조류)를 처리 가공해 비만 예방 관련 식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의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허성근 시장은 "연구소기업 전국 최다 등록이라는 양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과 같은 사업화 지원으로 연구소기업이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거창군, 문화시설에 방역수칙 관리대장 제작 배부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문화관련 시설에 방역수칙 관리대장을 책자로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산업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50여 개와 종교시설인 기독교, 불교 등 총 170개소에 방역물품과 함께 배부한다.

군에서 제작한 '문화시설 방역수칙 관리대장' 책자에는 방역관리자 지정, 동시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출입자명부 수기대장 등으로 구성된 문화시설 관리자들이 지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더욱더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 출입명부 작성 시 휴

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4자리와 한글2자리로 구성된 총6자의 고유번호(예: 가12나34)로 되어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의 QR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초 1회 발급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전까지 영구 사용 가능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시설관리자와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창녕군, 온 마을 주민이 우포따오기 보호에 나서

자연으로 돌아온 따오기, 마을의 품에 안기다



창녕군은 지난 20일 이방면 옥천마을회관에서 모곡·옥천마을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우포따오기 명예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포늪에 인접한 모곡과 옥천마을은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평소 따오기가 빈번히 출현하기 때문에 이번 마을 단위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참여는 따오기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군수는 "우포따오기 보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었지만 이렇게 마을 전체가 나서서 따오기 보호에 동참한 것은 우포따오기 복원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며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옥천마을의 한 주민은 "언제부터 찾아온 따오기가 내 아들, 딸 같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데 이렇게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졸출한 따오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포따오기 명예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는 지난 3월 3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출발했으나 이번 마을 단위 참여로 현재 33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남궁영기기자

의령군-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업무 협약 체결

의령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기관으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직업전문학교이다.

이번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와 산하, 가원봉사단과의 업무협약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대상지인 상동지구의 마을공동체 회복과 소규모 주택 주거환경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등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로 향후 집수리 인력지원 및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상동마을을 중심으로 약 5만㎡의 면적에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풍거점공간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등 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김문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의령군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함께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가원봉사단 김상경 단장은 "상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



그램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주거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령군 오태완 군수는 "이번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와 가원봉사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협약은 상동지구 주민 공동체 활성화

와 우리동네살리기 활성화 계획 세부사업 실행에 뒷받침 되어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의령군은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장흥군, 청년의 목소리 듣고 젊은 장흥 만든다

20일, 장흥군 청년발전협의회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장흥군은 지난 20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청년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청년이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마련했다.

장흥군은 지난 2월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장흥 발전과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제2기 위원을 선정하여 이날 13명의 청년을 위촉했다.

더불어 청년 동아리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청년마케터 양성 등 청년정책과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생

생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와 정책 발목을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장흥군 청년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일자리, 문화, 복지, 농어업의 4개 분과로 활동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 발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인구 문제의 중심은 청년에 있으며, 청년이 돌아오고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청년발전협의회와 군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청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 육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광주시-산림청-한국수목원관리원 명품 광주시립수목원 조성 손 맞잡는다

20일,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 간 연계 업무협약



광주광역시와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광주시립수목원과 도심권역 산림사업을 연계한 명품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에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최병암 산림청장, 류광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 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활용한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문화·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립수목원은 지난 2009년 조성계획 결정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5월 착공한 사업으로 민선 7기 들어 또 하나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한 사례다.

광주시립수목원은 당초 계획됐던 62ha에서 24ha로 규모가 줄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변 국유림 내 산림사업과 연계한 이용 공간 확대로 이를 보완하게 됐고 남도와 무등의 사계를 담은 명품수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광주시가 최초의 수목원을 개장하는 만큼 국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교류와 기술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산림청에서 도심권역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 사항 전반을 적극 지원하고, 산림청은 광주시 도심권역에서 다양한 산림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기관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등 3개 국립수목원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정보 등을 광주시립수목원과 교류·협력한다.

특히, 산림청은 올해 도심권역 산림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방댐 설치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광주시립수목원 주변 국유림에 시행해 본협약의 거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갖고 각 기관 간 분야별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목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생활환경 개선 기능 강화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적극 예방 ▲한국수목원관리원 소관 국립수목원 서비스 제공 ▲한국형 산림뉴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산림문화·휴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력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도심 내에 수목원, 정원,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사업이다”며 “광주시가 미래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국유림 내 산림사업과 시립수목원이 연계되고 국립수목원의 많은 노하우와 기술, 정보 등을 접목하면 우리 수목원은 최적의 조건에서 생태 환경을 지켜내면서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심권역 산림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여수시, 여순사건 한 맺힌 인터뷰 영상... 전 국민 지지 호소

70여 년 통한의 세월, 여순사건 유가족의 애달픈 목소리 영상에 직접 답아

여수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희생자 유가족의 인터뷰가 실린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며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목표를 신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영상을 별도 제작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총 9분으로 ‘침묵을 넘어 내일로’라는 부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를 시작으로 지난 70여 년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과 통한의 세월을 인터뷰에 생생히 담아냈다.

유가족 한 분은 인터뷰에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제사집이었죠. 이 집에서도 울고 저 집에서도 울고 동네 전체가 울었어요”라며, 자식을 잃고 또 부모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영상을 통해 “70여 년의 시간 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한 길 뿐이다”며, “어울한 사람 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온 국민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과 병을 반대하면서 촉발됐으며, 민간인과 군·경 수많은 지역민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 발의해, 현재 법안 심사 첫 단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가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남출기자

전남교육청, 30일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 공모

교직원 대상 생태·스마트·마을교육·공간혁신 전문가 40여명 모집

전남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및 미래교육 전환을 앞장서서 실천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을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실천단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의 생태교육, 스마트교육, 마을교육, 공간혁신 네 영역에 대한 교육활동을 함께 실천하고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생태교육 분과는 학교 내에서 생태 감수성 교육과 탄소배출 줄이기 등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만들기를 실천하며, 스마트교육 분과는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스마트 교수학습과 스마트한 학교교육 운영시스템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마을교육 분과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마을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실천한다. 공간혁신 분과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공간을 바꿀

내는 공간 프로젝트 수업과 새로워진 학교 공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네 분야 전문가 40여 명을 실천단으로 위촉해 운영하며, 이들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와 실천단 모집 등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적 전환과 새로운 미래학교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성과 창의융합, 생태와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미래학교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 공모 관련 내용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만기자

2021 전남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 모집

모집기간: 4. 30. (금)까지

모집인원: 40명 내외 (비교과별 10명)

위촉기간: '21. 5. ~ '22. 12.

지원대상: 전남 모든 교직원

관련문의: 061)260-0451

전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교육추진단

아이들의 삶에서 미래교육을 꿈꾸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이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
환경친화적이고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	스마트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마을·문화·교육·인문·과학 융합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운영 분과: 생태교육, 스마트교육, 마을교육, 공간혁신

운영 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연계활동, 전문성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구·실천 활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지원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현장 면접

문의처: 전남남도교육청 (주선)서 작성, 5. 4 (화) 신청접수 종료

영암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기찬들영암몰” 대박!

꿀고구마, 달마지쌀골드, 무화과쌀빵, 매력한우 등 소비자의 반응 뜨거워

영암군은 온라인 쇼핑몰 ‘기찬들 영암몰’을 4월 1일부터 개관해 기(氣)찬 농 특산물 마케팅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찬들 영암몰’은 2월에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임점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1일 온라인 영암왕인문 화축제와 함께 개관해서 왕인문화 축제를 찾는 시청자들에게 영암군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시너지효과를 더했다.

최근 가장 유행하는 ‘라방’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지난 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유기농 쌀, 대추 방울토마토, 유기농 흑미, 유기농 홍미, 꿀고구마 등 영암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해 전량 완판되는 성

황으로 6,6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왕인문화축제 코너 중 목포MBC 라디오를 통해 영암 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에 ‘기찬들 영암몰’광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다양한 유튜브 홍보, 바이럴마케팅 등 농특산물 마케팅에 주력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영암 농특산물 누적 매출액은 5억여원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기찬들영암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으로는 꿀고구마, 달마지쌀골드, 무화과쌀빵, 매력한우 등이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가입 회원수와 임점농가, 임점품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찬들 영암몰’에서 5~6월 영암 농특산물 특별전, 7월 멜론 특별전, 9월 추서 명절맞이 특별전을 개최하고, 추가로 10월에는 무화과, 11월에는 영암 명품쌀, 12월에는 김장김치 특별전도 펼칠 계획이며,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라방”) 또한 약 10여회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암군 우수 농 특산물을 한 곳에 모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찬들 영암몰’에 많이 임점 해달라”며, “다양한 판매 전략을 통해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익산시, 문화도시 협력체계 '행정협의회' 구성

익산시는 체계적으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문화도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택림 부시장과 18개 부서 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행정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특강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설명, 각종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행정협의회는 행정 내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다같이'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오택림 부시장은 "이번 발족식은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협의회는 부서별 연계 정책과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며 시민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전라북도, 역시 농촌관광 명가(名家)답네

농식품부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 전국 최다 4개소 선정

전라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인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가 선정되며 농촌관광의 명가(名家) 타이틀을 달았다.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 차게 시행하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전북도는 전국 20개소 중 도내 4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되었다. 전국 최다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마을은 김제 수류산골마을, 완주 경천에인권역, 완주 창포마을, 익산 산들강 옹포마을 등 4개소다.

김제 수류산골마을은 모악산 금산사 인근에 있는 마을로, 130년의 역사를 가진 수류성당과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으며, 캠핑장을 겸비해 연중 다양한 관광객이 찾는 마을이다.

역사·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연자가루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진단 만들기 등 생태·생물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완주 경천에인권역은 초가집 숙박을 갖추고, 강릉열차 타기와 농사 체험으로 주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농촌 현장 체험장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최근 치유·힐링 관광이 대두되면서, 마을과 연계한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객의 연령층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완주 창포마을은 한옥의 정취와 주변 놀도피아와 연계한 다수의 놀거리로, 연중 방문객이 3만 명에 육박하는 유망마을이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들 수 있는

지역 농작물과 미니 수족관을 결합한 '아쿠아포닉스(나만의 작은 어항만들기)'로 농촌체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익산 산들강 옹포마을은 농촌마을의 5성급 호텔이라고 불릴 정도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로, 돛배 체험과 농사체험으로 지역의 기여도까지 특색있게 알짜배기 마을이다.

금강변의 정취를 바탕으로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코로나 시대의 '건강, 금강생태 바로 알기'에 대한 깨알 재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운

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 수요는 2019년 대비 93.8%가 감소했으며, 감소된 여행수요가 한적한 힐링여행, 가족 단위의 농촌관광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도 기존의 대규모 여행단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소규모 여행객을 타겟팅으로 한다.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마을당 최대 2천만 원의 국비가 전액 지원되며,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재료비, 콘텐츠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호일 전라북도 농촌활력교장은 "전라북도 농촌관광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게 농촌마을별 특색있는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도시민들이 방문하는 농촌마을마다 숨은 보석을 찾아내는 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담양군, 호우피해 저수지 준설 완료 ... 농업용수 확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저수용량 부족 우려, 3억 원 들여 군 32개 저수지 응급 준설

담양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군 관리 저수지 32개소의 준설을 완료하고 용수확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내 토사유입으로 저수용량의 부족 및 수문막힘 등을 우려해 최형식 군수는 2021년도 준설사업비 3억 원 반영을 특별 지시했으며, 군 관리 저수지 32개소에 대하여 응급준설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퇴적량이 커 응급준설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추가로 군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퇴적물 15만 m³를 준설 완료함으로써 영농기 물 부족 걱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은 군 관리 70개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리 47개소 등 총 117개소의 저수지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 저수율 73.7%(74,713톤)으로 작년 저수율 대비 73%와 유사한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

민의견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준설계획을 수립, 지역 영농인이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는 탄소원을 흡수하는 친환경 농법을 연차적으로 준설계획을 수립, 지역 영농인이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남원, 2021 한복문화'봄'주간 성료

남원시가 2021 한복문화 '봄'주간을 맞아 광한루원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서 펼친 한복의 향연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17일 한복체험관 화인당 개관 기념으로 열린 김혜순 한복명장과 두댄스(연출, 안무 홍화영)의 공연형 한복패션쇼 '廣寒情人(광한정인)'를 본 관람객은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운 한복이 펼치는 뮤지컬 같다'며 한복문화도시 남원이 펼친 행사에 탄성을 자아냈다.

남원을 비롯해 전국 7개시와 함께 한복주간행사는 18일에 종료되지만 시는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예원관에서 한복교육 관련 '우리 옷, 한복'체험형 전시와 화인당 개관 기념 한복무료체험행사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하고, 내달 28일까지는 남원다움관 한복카이브 특별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한복전시를 진행한다.

특히, 김병종미술관의 한복전시 'Dialogue. 상춘곡'은 이번 한복주간



에 전시기념으로 진행한 '봄꽃의 시간'에 가수 '알리'의 전시 헌정곡 깜짝 발표를 만난 관광객들의 요청에 의해 5월 9일 종료예정이었던 전시를 28일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한복을 입는

옷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예술분야와 결합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복문화도시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선언' 시민 생존권·미래세대의 꿈 지킨다!

전주시가 시민사회단체, 하천·녹지·교육·에너지·교통·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생태도시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 것은 전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함이다.

먼저 오는 2035년까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한 마디로 탄소중립도시 선언은 행정과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구의 날인 22일 발표한 '전주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선언'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전주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생태교통협의회, 도시계획협의회 등 6개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 참여 실행기구 관계자, 미래세대 대표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 저감을 위한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전환 △천만그루정원도시 확대 조성 △폐기물 저감 및 녹색자원 전환 △지역 먹거리 활성화 및 친환경 농법 지원 △시민 환경교육 제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생태교통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체계 혁신으로 생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생태교통 분담율을 60%까지 늘리려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전환 분야의 경우 시는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는 수소에너지전지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시민햇빛발전소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 곳곳에 제로 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시민 태양광 자가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녹색 빌딩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환경오염을 막는 스마트 그린 산단에 조성해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녹색산업으로의 전환도 꾀한다.

특히 시는 11대 거점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율을 늘리기로 했다. 또 일회용품 줄이고, 폐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지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친환경 농법을 흡수하는 등 지역 먹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모두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환경교육과 시민 실천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생활 속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가장 앞장서 대응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대한민국 수소시범도시답게 시꺼먼 매연 대신 깨끗한 공기와 불탄 배출물 '달리는 공기정정기'로 불리는 완성형 수소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친환경 수소차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현재 효자배수지와 송천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등 2곳에 설치된 시민햇빛발전소를 올 연말까지 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각 가정의 아파트 배란다에는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을 실현하고, 사람과 환경, 지구를 살리겠다는 각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며, 선언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세대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보성군, '전 국민 긴급재난 생활비' 공무원 예비 등 식감 고통분담

보성군은 오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함께 동참하고 힘써준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40억 원 규모의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는 전역 군비로 지급되며, 공무원 예비 등 필수 행정 운영 경비와 축제성 예산 등을 삭감하여 마련됐다.

어떠한 어려움도 군민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기조로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대응해온 보성군은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서도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 위민행정이 돋보인다.

특히, 행정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확충, 군민 여가 생활 신장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인 4월 20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4만여 명이며, ▲2021년 3월 31일 기준 보성군 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1차 현장 지급을 실시하고, △5월 3일부터 7일

까지는 미수령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공유일인 어린이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읍·면사무소 접수창구에서 재난 생활비를 수령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1인이 대표 수령 가능하다. 이때, 수령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마을 방문 현장 지급 기간(4.26~30) 중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통해 가정의 달 코로나19로 힘든 군민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의 위기에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과 신속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보성군장학재단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각 학교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2021년 3월 31일 기준 보성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김영만기자

대전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대폭 개선

최근 3년평균 대비 초미세먼지(25%), 나뭇잎수(57%), 종음일수(105%) 개선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평균 28μg/㎥에서 올해 21μg/㎥로 25% 감소, 나뭇잎수는 28일에서 12일로 57% 감소한 반면 '종음'일수는 21일에서 43일로 105% 증가했다.

특히,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적도가 되는 비상저감조치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계절관리제 기간에 발령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이번 결과가 그동안 시의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와 더불어, 조기폐차·전기차·저녹스보일러 지원 등 저감사업 지속추진, 코로나19 경제상황, 기상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시민건강 보호 등 각 분야에서 평소보다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집중 홍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집중 단속, 대형관급공사장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산업부문은 대전시와 협약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4개소에 대한 배출량 감축,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운영으로 불법배출 예방·감시, 유기용제 사용(도장시설) 사업장 집중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했다.

생활부문은 5개구별 집중관리도로를 지정(33.6km) 매일 도로청소 실시, 영농잔재물 파쇄·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시민건강 보호 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3개구역)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층·육외작업자 등에 마스크 보급,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7,6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000대, 전기차 3,800대, 전기이륜차 500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8,000대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청양군, 먹거리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개최

청양군이 20일과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양군먹거리위원회 3개 분과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 전략 평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안전먹거리분과(15명), 공공먹거리분과(15명), 건강먹거리분과(15명)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청양군은 올해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양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까지 청양군먹거리종합타운에 7개 시설을 완공해 푸드플랜 발전의 디딤돌

로 활용할 계획이다. 7개 시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안전성분석센터, 구기자산지유통센터, 산채가공센터, 농산물전처리센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이다.

군은 또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 개장·운영에 이어 대도시 공공급식 공급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우리군 푸드플랜의 성공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장기적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세종시 이춘희 시장, 일회용품 사용 감량 앞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용기내세종' 운동에 동참했다.

용기내세종은 음식이나 제품 구입 시 직접 가져간 용기(容器)를 사용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세종시 시민참여 실천 운동이다.

플라스틱 일회 용품 감량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후행동 중 하나로,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시민 관심과 맞물려 급속히 확산 중이다.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청 근처 '용기넌가게'로 등록된 커피숍을 찾아 준비해 온 개인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용기넌가게는 용기내세종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텀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가게를 의미한다.

이 시장은 캠페인 참여에 이어 시

민들이 생활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저탄소 실천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참여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용기내세종에 참여하는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텀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용기넌가게'를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 또는 SNS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구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할 때"라며 "용기내세종 등 지구를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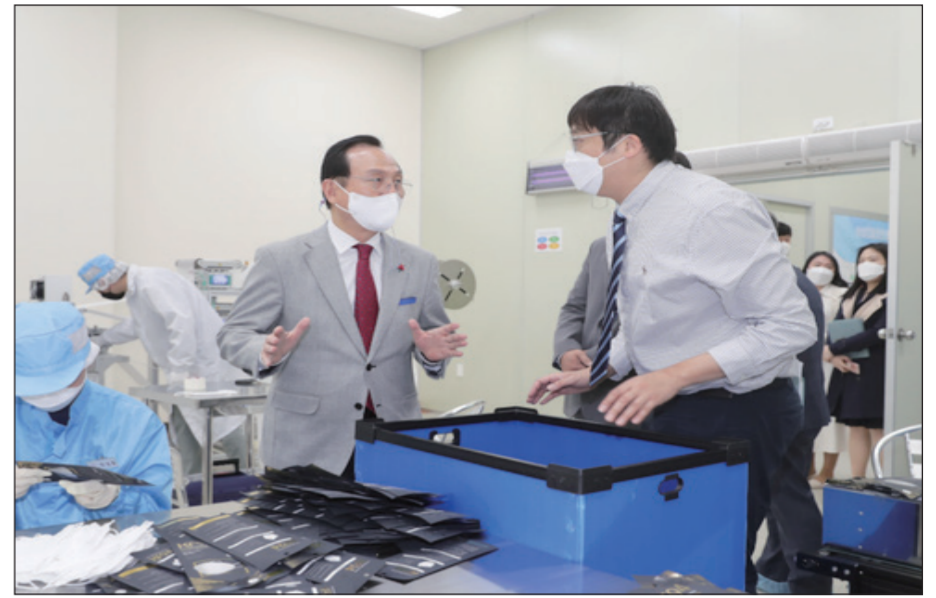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 가온누리 보호작업장 방문해 장애인 이용자와 소통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백석동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협동조합 가온누리 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KF보건용마스크와 CCTV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을 고용해 일자리와 사회성 발달이 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대한 정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홍천군, 스마트 수도미터 교체사업 90% 완료



홍천군은 상수도 관리와 운영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첫 단계인 노후 수도미터 교체사업을 90% 가량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노후 되거나 원격검침이 불량한 교체대상 4,170개 수도미터기 중 3,726개의 교체를 완료했다. 나머지 설치장소 등의 문제로 교체가 어려운 444개의 수도미터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교체를 마칠 예정이다.

노후 수도미터기가 교체됨에 따라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누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누진 요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유익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국 최초로 블록별 실시간으로 유수율(정수장 생산량 대비 소

비사용량)를 파악할 수 있는 상수관망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누수 지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복구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수도요금 상승 요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유수율은 82.3%로 최종 목표 유수율 85%를 준공 전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3월부터는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착수, 군내 노후관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GIS 정보화로 체계적인 상수관로 관리와 노후관로 교체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2023년부터는 주기적인 관세척 등에 활용해 관속에 퇴적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방상수도의 모든 공급 과정에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물 관리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과학적 수량·수질관리와 수돗물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관리 체계다.

정동희기자

대전 유성구, 과학의 날 특집 '과학도시 스토리 유성' 영상 제작 발표

대전 유성구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도시 스토리 유성' 영상을 제작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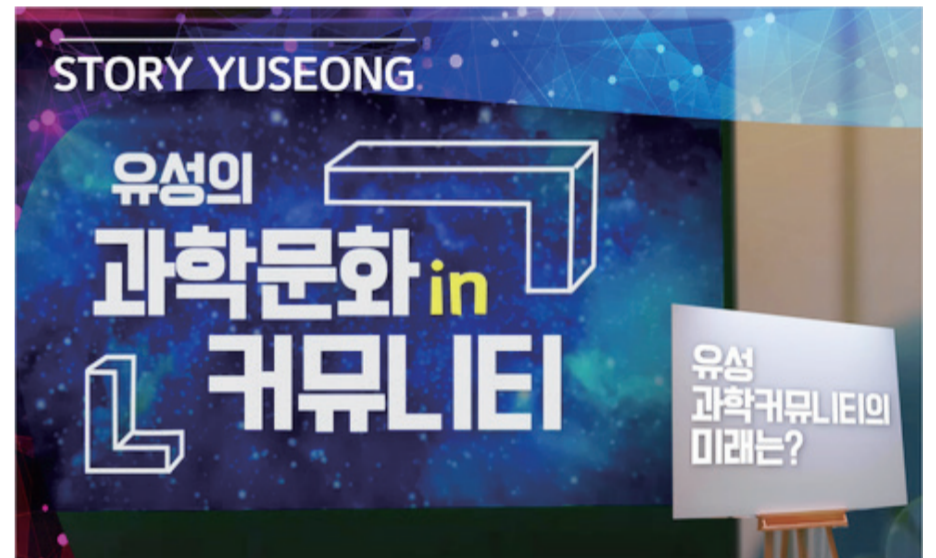
'과학도시 스토리 유성'은 지역의 공룡 전시물, 여성 과학자, 과학 커뮤니티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유성구 과학전문 유튜브 채널 '유성다과상'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공룡이 살아있다'는 지질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천연물기념센터의 지역 공룡 전시물을 전문가의 소개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덕의 여성과학자들 만나다'는 반세기 역사 속 대덕특구 여성과학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유성의 과학문화 in 커뮤니티'를 통해 유성의 민간 과학커뮤니티 활동 성과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가까이 있지만 숨겨진 지역의 과학문화 스토리를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스토리 유성 영상을 통해 주민들이 과학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향에서 '동강을 빛다', 영월군 제54회 단종문화제 기념 단원 조민호 도자기 전시회

제54회 단종문화제를 맞이하여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단원 조민호 도예가의 도자기 작품 전시회가 개최된다.

영월출신이자, 영월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 조민호 도예가는 단국대학교 도예학과를 졸업, 2017 경기도 광주시 8대 명장 지정, 2008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 어워드 수상 등 각종 경력 지녔을 지난 유네스코 인증 작가이자 도예 명장으로 스위스,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개인전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다.

이번에 고향인 영월에서 펼칠 도자기 전시 테마는 '동강을 빛다'로, 단원 조민호 도예가가 어린 시절 동강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동강의 강물들을 오브제로 사용해 도자기화한 작품들을 위주로 전시를 펼칠 계획이다. 조민호 도예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보다 '고향'을 보여줄 것이며, 드넓은 바다를 겪고도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모천회귀를 앞둔 연어의 심정으로 전시를 준비할 것이다.'라며 고향에 대한 열정과 애착을 전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도자기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군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시

간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기간 중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관내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레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개막식은 4월 30일 오후 2시이며, 전시 기간 중 별도 안내자를 배치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에 따라 입장 전 발열체크, 전시장 내부 마스크 착용, 관람시 1m 간격 유지 등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전시를 개최할 것이다.

최만식기자



홍성군, '슬기로운 홍성생활' 책자로 다양한 혜택 한눈에!

홍성군이 홍성군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핵심 분야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홍성군 인구증가 시책 안내 책자 '슬기로운 홍성생활' 제작·배부하고 있다.

책자는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 지원과 같은 전입지원과 함께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등 임신·출산 분야, 키움노리 연회비 지원,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등 보육·교육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자녀, 다문화, 청년, 귀농·귀촌 등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별 정보를 담고 있다.

군은 안내 책자를 군민의 방문이 잦은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에 비치하여 홍성군민은 물론 전입을 고려하는 예비 홍성군민들에게 인구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

다. 또한 홍성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인구정책)에 자료를 게시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군민이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살고 싶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내책자를 활용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대전시설공, 제25회 실업육상대회 장대높이뛰기 금 획득

육상팀 한두현 선수, 군복무 마치고 복귀한 첫 대회에서 1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육상선수단은 4월 20일부터 실시된 제25회 실업육상대회 첫날 남자일반부 장대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팀 한두현(28세) 선수는 군복무(국군체육부대)를 마치고 원 소속팀인 공단으로 복귀한 첫 대회에서 5m 20cm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훈련 중 장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조용 장대로 출전하여 값진

결과를 얻었다.

대학 졸업 후 첫 입단한 공단에서 시작을 함께한 한두현 선수는 열악한 대전의 수직도약 선수 후학양성과 육상발전에 포부를 가진 차세대 인물이다.

공단 육상팀 박창규 감독은 "평소 자기관리가 투철하며 훈련 중에도 수직도약 후배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멘토 역할까지 해낸다."며, "대전 육상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는 선수"라고 깊은 칭찬을 쏟아냈다.

고정화기자



"안동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이웃돕기 성금전달"



안동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성금 70여만 원을 안동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안동고등학교 교복 물려주기 자치위원회 학생들이 비마당근시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과 교사들의 기부금을 모아 마련했다.

비마당근시장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행사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을 아끼고 재 활용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양시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안동고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성금 전달을 통해 학생들이 나눔과 봉사, 연대의 가치를 체득하길 바라며,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희망나눔을 실천하는 안동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눔실천 확산과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양산시, 기부1번지 소주동, 부산어묵 착한기업 현판 전달

소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일 ㈜부산어묵을 방문해 착한기업·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기업·가게는 정기적인 현물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가게를 말하며, ㈜부산어묵은 착한기업에 8번째로 동참하게 됐다.

㈜부산어묵은 지난 4월 6일부터 매일 격주 화요일마다 월2회 소주동행정복지센터에 어묵을 기부하고 있으며, 기부된 어묵은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한부모가족 등 돌봄이웃에게 전달된다.

이규생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천안시민 '난치병 투병 이봉주 선수 돕기' 성금 전달

일반시민, 천안시공무원, 체육인, 기업인 등과 함께 마음을 담아 격려

박상돈 천안시장과 한남교 체육회장이 21일 오후 이봉주 선수의 성가읍 고향집을 방문해 이봉주 선수를 격려했다.

이날 천안시체육회는 천안시민, 천안시공무원, 체육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성금을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이봉주 선수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박상돈 천안시장과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은 이봉주 선수의 안타까운 투병 소식을 접하고 이 선수의 고향집을 방문해 패우를 기원했다.

천안시체육회는 이후 곧바로 후원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원계좌에 성금이 모이면 이봉주 선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남교 회장은 "천안시민 모두가 천안을 빛낸 이봉주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후원 모금을 지속해 나가고 이봉주 선수의 제105회 보스턴마라톤 대회 제패 기념 '이봉주마라톤대회'를 내년 상반기에 천안에서 개최하겠다"



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 성가 출신 국민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가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

오길 기원한다"며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대전시 유성생명과학고, 대전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전종목 금메달 석권!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2, 우수상 1, 장려상 2 획득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는 지난 4월 5일 부터 9일 까지 숙련기능인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된 「2021년 대전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전한 모든 직종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1년 대전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제빵, 농업기계정비 등 총 53개의 직종(전국기능경기대회와 동일)의 분야에서 대회가 진행됐다.

유성생명과학고는 이번 2021년 대전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조리제빵과정과 자동차·건설기계과정의 학생들이 각각 제빵 직종과 농업기계정비 직종에 출전하였다.

제빵 직종에서는 금메달(1위) 3학년 신호은, 은메달(2위) 3학년 김이영, 동메달(3위) 3학년 김유경 그리고 장려상(4위) 2학년 김태은 학생이 수상하였고, 농업기계정비 직종에서는 금메달(1위) 3학년 최성민, 은메달(2위) 3학년 김성민, 동메달(3위) 3학년 이지훈, 우수상(4위) 2학년 이경수 그리고 장려상 3학년 노경민 학생이 수상하였다.

제빵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조리제빵과정 3학년 신호은 학생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함께한 기능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대전에서 치러질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농업기계정비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자동차·건설기계과정 3학년 최성민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 하어서 더욱더 잘 할 수 있었고,

대전광역시 대표 선수로서 열심히 준비하여 지금보다 향상된 실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오는 10월 4일부터 11일 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는 7명 학생이 대전광역시 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더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화기자

횡성군청 불링실업팀 '하누스', 태극마크 달아

양수진 국가대표, 황연주·최애립 상비군 선발

횡성군이 21일, 횡성군청 소속 불링실업팀 '하누스' 소속 여자불링 양수진 선수가 국가대표에, 황연주·최애립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횡성군청 불링실업팀 '하누스'의 양수진, 황연주, 최애립 선수가 출전한 2021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경북 구미북합스포츠센터 내 불링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가대표 8명, 국가대표 후보선수 4명, 상비군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양수진 선수는 국가대표에, 황연주, 최애립 선수는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2월 창단한 하누스는 김희순 감독의 지도 아래, 주장 황연주 선수를 비롯해 최애립, 김연우, 이송원, 양수진, 정미경 등 6명의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19 속에도 대통령기 전국 불링대회 개인전 1위, 슈퍼불링2020 3위, 여자팀 최고인기선수상, 최고인기팀상, 퍼펙트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

과 인기를 인정받았다. 횡성군은 하누스를 응원하고 불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날 말까지 공식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정동희기자

챌린지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고고(GoGo) 챌린지' 참여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20일 '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가지와 해야 하는 행동 한 가지에 대해 실천을 다짐하며 SNS에 글과 사진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철영 의장은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이스팩 수거사업, 북극곰마을 운영, 예코플로깅 활성화 등 환경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아이스팩 규격화 등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벤치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도적인 환경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최승태 연천군의회 의장에게 지목되어 챌린지에 참여한 이철영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과 조양래 남양주시이통장 연합회장을 지목했다.

최정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119릴레이 챌린지' 동참

이성 구로구청장이 19일 '119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19릴레이 챌린지'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구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했다.

캠페인 홍보사진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이성 구청장은 이날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성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김수영 양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지목했다.

이성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실내 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Advertisement for 'Changwon Dalinja' (창원을 달린다) featuring a cyclist and text about a 1.5% discount challenge.

2021 경기아트센터 마스터시리즈 |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

2021 경기아트센터 마스터시리즈, 세 번의 거장과의 만남 첫 번째 공연, 4월 27일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 정명훈이 4월 27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의 리사이틀 시리즈인 <2021 경기아트센터 마스터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이다.

정명훈은 2014년 한국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무대를 올린 이후 약 6년 4개월 만에 새 피아노 앨범과 함께 돌아왔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 전후 있었던 일부 초청 독주회를 제외하고는, 정명훈이 온전히 '피아니스트'로서 무대에 서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지휘를 겸하는 협연 무대나 실내악 무대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극히 일부였다. 하지만 50여 년의 음악인생 동안 한 번도 피아노를 놓은 적이 없다고 밝힌 정명훈은 201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이후 40년이 지나서야 피아니스트로서 한국에서 첫 리사이틀 투어를 가졌다. 당시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60세가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내게 피아노는 진짜 음악이다.'라며 피아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6년 만에 다시 피아니스트로서 만나게 될 정명훈의 이번 리사이틀은 4월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로

발매 예정인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이다.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60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브람스의 세 개의 인터메조 Op.117, 네 개의 피아노 소품 Op.119을 연주한다. 연주되는 모든 곡들은 작곡가들이 5-60대에 작곡된 말년의 작품들로 '피아니스트 정명훈'으로서 담아낸 음악적 성찰이 기대된다.

2021 경기아트센터 마스터시리즈는 6월,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1일)과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리사이틀(22일)로 이어진다.

경기아트센터 마스터시리즈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ggac.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6월 마스터시리즈 패키지 할인을 진행하여 패키지 30% 할인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 관람 후 다음 마스터시리즈 공연에 실물 티켓 지참 시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 기구매자 할인이 마련되어 있다. 그간 모범적인 코로나19의 체계적인 방역 하의 공연모형을 제시해 온 경기아트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한 좌석 거리두기로 운영한다.

최근수기자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

MYUNG-WHUN CHUNG PIANO RECITAL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60번 C장조, Hob.XVI/50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E장조, Op.109
브람스 세 개의 인터메조 Op.117 | 브람스 네 개의 피아노소품 Op.119

2021.4.27.TUE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티켓 문의: 인터파크 | 서울공연 | 공연문의: 02-320-3411 | 경기아트센터: 021-230-3411-2 | www.ggac.or.kr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미래엔 뭐하니? : 언택트 세상 속,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

금천문화재단은 4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에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미래엔 뭐하니?' : 언택트 세상 속,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초래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삶의 기술을 제시하기 위한 강좌로 구성된다.

강좌는 4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총 15강)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좌로 운영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 30명을 금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모집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모두가 안전하게 하루빨리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제 위기를 계속적으로 풀을 수밖에 없는 미래사회에서 우리 모두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광수기자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미래엔 뭐하니? : 언택트 세상 속,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

일시	주제	내용	강사	도움
4.22.목 10:00	코로나19 팬데믹과 언택트	코로나19 팬데믹과 언택트	김영성	언택트
4.29.목 10:00	코로나19가 초래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인식	2021년 우리가 주목할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	김영성	라이프 트렌드 2021
5.6.목 10:00	언택트 시대: 공존을 위한 공부, 미래를 위한 공부	언택트 시대: 공존을 위한 공부, 미래를 위한 공부	김영성	프로젝트별 스터디
5.20.목 14:00	포스트코로나 사회경제변화	포스트코로나 사회경제변화	김영성	세계미래 보고서 2021
5.27.목 14:00	미래 부상산업, 부상기술과 우리의 준비	미래 부상산업, 부상기술과 우리의 준비	김영성	세계미래 보고서 2035-2055
6.3.목 14:00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	김영성	세계미래 보고서 2035-2055
6.10.목 14:00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6.17.목 14:00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7.1.목 14:00	가진 언택트도 환란에는 필요	가진 언택트도 환란에는 필요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7.8.목 14:00	직업의 변화와 미래 직업	직업의 변화와 미래 직업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7.15.목 14:00	경제적 자립, 영구소득	경제적 자립, 영구소득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7.22.목 14:00	언택트 사회, 어떤 모습일지?	언택트 사회, 어떤 모습일지?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7.29.목 14:00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8.5.목 14:00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8.19.목 14:00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김영성	미래의 일자리 기술

대상: 성인 30명
기간: 4월 22일(목)~ 8월 19일(목) / 총 15회
접수: 4.15(목) 09:00부터 도서관홈페이지 접수
진행: ZOOM 활용 온라인 강좌 (코로나 추이에 따라 오프라인 가능성 있음)
문의: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02)2627-2996

※ 사전신청자에 한해 ZOOM 강좌 링크 제공
※ 녹화 및 인포드(무단배포) 절대 불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영주시, 마당놀이 '유의(儒醫) 이석간' 공연 개최



'儒의 道로 仁의 術을 펼치다!'

경북 영주시는 오는 24일과 25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마당놀이 '유의(儒醫) 이석간' 공연을 개최한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영주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20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발굴·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4개월 정도 지연돼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마당놀이 '유의(儒醫) 이석간'은 조선중기 영주 뒤새(두서)에서 선비로서의 활인의술을 펼쳤던 이석간 삶을 마당놀이로 완벽하게 펼친 작품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과 25일 오후 3시 30분과 7시 30분에 걸쳐 총 4회 실시하는 이번 공연의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참석자 명부작성, 한 칸씩 띄어 앉기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1회당 입장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해 진행된다.

장육현 영주시장은 "이번 공연은 신봉고하를 막론하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조선시대 의술과 관련된 이야기로 '코로나19' 시대에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당놀이 '유의(儒醫) 이석간'의 예약문의와 공연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국연극협회영주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영화음악 콘서트 '올라 비올라 Red Carpet'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나는 4월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맞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명작 영화 속 주옥같은 영화음악 콘서트를 마련했다.

오는 23일 저녁 7시 30분 영화음악 콘서트 '올라 비올라의 Red Carpet'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명작 영화는 음악과 스토리가 잘 어우러져 감수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배가시킨다. 특히 '올라 비올라 Red Carpet'은 누구나 공감가는 명작 영화 스토리 속에 음악이 전달하는 감정과 의미를 비올라 앙상블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을 위한 세기의 러브 스토리 '냉정과 열정사이', 배우 알 파치노가 탱고를 추는 명장면으로 유명한 '여인의 향기', 톰 크루즈의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등 세계적인 명작 영화 OST가 펼쳐진다. 올라 비올라만의 특색 있는 연주와 함께 쉽고 유쾌한 해설과 진행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음악 평론가 장일범의 해설이 함께한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 오순화와 스페인 국왕의 문화훈장을 수여받은 기타리스트 장승호의 협연으로 비올라 앙상블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올라 비올라는 '안녕'이라는 스페인어 '올라'의 의미를 담아 창단된 단체로 비올라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편안함과 설렘 가득한 감성을 전달하고자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창조적이면서 개성 있는 연주로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올라 비올라의 Red Carpet'은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전석 2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김해시, 왕가위 영화로 만나는 홍콩의 청취 칠암도서관 '도서관인의 밤' 랜선 콘서트 개최

칠암도서관은 이달 28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90년대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미장센'의 대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 세계와 영화 속 OST를 라이브 연주로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 '도서관인의 밤'을 개최한다.

최근 '화양연화', '중경삼림' 등 그의 대표 영화들이 잇따라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네마 리바이벌'의 저자이자 국제신문, 씨네21 등 각종 영화 미디어에서 활동 중인 조재휘 영화평론가를 초청하여 '왕가위로 보는 영화 매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 사이에는 김해 출신의 음악가 단체인 '아트메니지먼트 이랑'이 '캘리포니아 드림', '해피 투게더' 등 왕가위 감독 영화에 흐르던 주옥같은 OST들을 라이브로 연주하여, 90년대 홍콩 영화 분위기와 우리들의 추억과 향수를 되살릴 수 있는 레트로 감성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8일 오후 7시부터 칠암도서관 2층 인문학 자료실과

칠암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인의 밤

2021. 4. 28(수) 오후 7시-9시
칠암도서관 2층 인문학자료실 (평일 독서실과 연계)

영화 평론가 조재휘 × 아트메니지먼트 이랑

영화와 음악이 함께 하는 도서관인의 밤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강연 왕가위로 보는 영화 매체 "영화평론가 조재휘", 공연 왕가위 감독의 영화 OST 연주 "아트메니지먼트 이랑"

대상: 김해시민 10명
접수: 2021. 4. 19(월) 오전 10시 ~ 선착순 마감 (인터넷 접수 - 김해시 공공예약포털)
문의: 칠암도서관 열람팀 T.055-330-2934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 참여는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

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청은 누구나 가능하다.

최광용기자

부산MICE 페스티벌에서 동백상회 입점 부산 제품 판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돕는다

부산시는 4월 21일부터 4월 23일 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로비에 부산MICE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동백상회 임시 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입점 기업 제품에 대해 홍보·판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판매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동백상회에 입점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산MICE 페스티벌 행사 기간 내에 부대행사로 실시된다.

동백상회는 부산의 관공인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층에 있는 부산 우수제품 쇼핑 매장이며, 부산제품을 한자리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입점 제품은 소비재 위

주의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이 주를 이룬다.

본 행사에는 동백상회 입점해 있는 기업 중 11개 사 33개 품목을 선정, 동백상회 임시부스를 설치하여 지역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 생활용품, 문구류, 핸드메이드 제품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부산MICE 페스티벌 방문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위기 속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MICE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실증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조달 정책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상품 발굴에 관한

개와 동백상회를 홍보 함으로써 입점해 있는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이와 같은 특별판매전 외에도 올해 5월 동백상회에 신규 입점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역 동백상회 할인행사 외에 다양한 행사 및 장소에서 기획전 및 팝업스토어를 마련하여 동백상회 입점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특별전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의 출발점이 되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인천시, 혁신조달로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 나선다

4월 21일 인천시·조달청 업무 협약

인천광역시시는 21일 송도 G-타워에서 조달청과 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정우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조달 제도’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업의 판로 확보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

과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어렵게 만든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혁신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아울러 판로 확보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실증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조달 정책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상품 발굴에 관한

사항 ▲벤처창업조달상품 지정·등록 ▲홍보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날 협약으로 인천시는 현장 맞춤형 혁신조달 교육을 우선 배정 받고 벤처나라*상품 등록 시 인천시 추천을 받으면 조달청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조달청의 업무협약으로 인천시 기술혁신기업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이끌어내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국내를 넘어 해외 조달시장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기재부 차관 “물가·금리상승 우려에 금융시장 발작적 대응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 상존...가계·기업 부채 부담 등 면밀히 살펴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 기간 저물가·저금리에 적응된 상태인 만큼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불거질 경우 시장이 발작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경제는 백신보급과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등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차관은 “선진국과 비교해 신흥국의 경기회복이 더디지는 불균등 회복의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면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압력이 확대되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갈등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와 우리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파생적 영향을 보다 폭넓고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금리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가계·기업의 부채 부담 상승,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선진국-신흥국 간의 불균등 회복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 등이 대표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가계·기업의 부채 부담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대출 영향 최소화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취약 신흥국의 위험 확대와 자본유출 압력 등이 우리 경제·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중경사업 등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한편, 정책상황과 경기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내수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실시

업소당 최대 2억원 저리융자... 연리 1~2% 2년 거치 3년 상환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실,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윤병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양산형 현장밀착형 청년 일경험(Pre-Job사업)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첫 시행

양산시는 미취업 청년과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기업, 복지시설의 매칭을 통해 희망하는 직무를 사전 탐색하고, 자격증을 가지고도 일 경험 기회가 없는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양산 청년일 경험 제공 Pre-Job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을 일경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차별성과 실효성에 역점을 둔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으로, 청년에게는 다양한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민간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상생발

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 청년창업자금지원,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고용지원금 지급 등 양산시가 추진 중인 고용·창업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사업장과 청년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6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주이며, 사업비는 총 608백만원이다.

우선 참여 사업장을 선발기준표에 의거 모집·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 중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이

1~3지방까지 지원하여 추첨프로그램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산시는 사업장에 청년 참여자인건비(최저 지급 기준)를 지원하며, 특히 고용부담이 큰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을 선별하여 사회보험 사업장 종료 후에도 참여사업장과 청년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경험 제공, 근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사업장 모집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청년들의 전공, 자격증 등을 점목시킬 수 있는

업무 경험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기업, 복지시설은 어디든지 참여가능하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단순 서빙, 접객, 사무보조 등 업무 제공 사업장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청년 모집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19~39세 이하의 양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

를 희망하는 청년은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되고, 공고문의 참여 사업장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서에 1~3지방 사업장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고용시장 위축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청년과 소상공인,기업 등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경북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시장 개척 박차

마일스 썸파(Miles Bwalya Sampa) 잠비아 루사카시장이 22일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도지사를 면담하고 경상북도와 루사카시 간 교류협력 및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와 마일스 썸파 시장은 에너지·농업 등 관심 분야에 대해서 경북의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지속적인 교류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 몽골 울란바타르시와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아프리카지역 태양광가로등 해외사업에 첫 수주하는 성과를 내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잠비아 국책사업으로 530억원 규모의 '루사카시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이며 (주)수환청신테크*(대표 박정호)가 1차분 공사 170억원의 적격업체로 최종 선정되어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현지실사를 위한 방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경북도에서 루사카시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함으로써 전격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

특히, 이번 계약은 힘든 코로나 시대에 경북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북도의 발 빠른 행정지원 등 긴밀한 민·관 협력체제로 아프리카 진출의 기회를 잡고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찬우 (주)씨에스텍 대표는 “경북도의 도움으로 계약이 성사되어 기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해외진출에 성공한 지역기업이 있어 매우 든든하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기업의 애로사항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해결해 갈 것이며 도내 기업 및 도민이 잘 살기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방안 논의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관계기관 40명 참석

산림청은 21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배, 신정훈, 임태영, 이상만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발전공기업 등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과 관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했다.

산림청은 2018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용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수입산 목재펠릿(목재 압축 연료)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가격 하락으로 수입산 목재펠릿과 비교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관련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목재부산물도 가치 있게 사용되고 산림분야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정책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다니엘, 컴백과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강다니엘이 컴백과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왕좌를 차지했다.

강다니엘의 신곡 'Antidote(안티도트)'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16주차 집계 기간 (4월 11일 ~ 4월 17일) 동안 2,977만 뷰를 기록하며, 컴백과 동시에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강다니엘의 'Antidote' 뮤직비디오는 발매 11시간 여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하며, 종전 자체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지난 2월 'PARANOIA'로 49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달성한 기록을 이번 'Antidote'로 약 38시간 단축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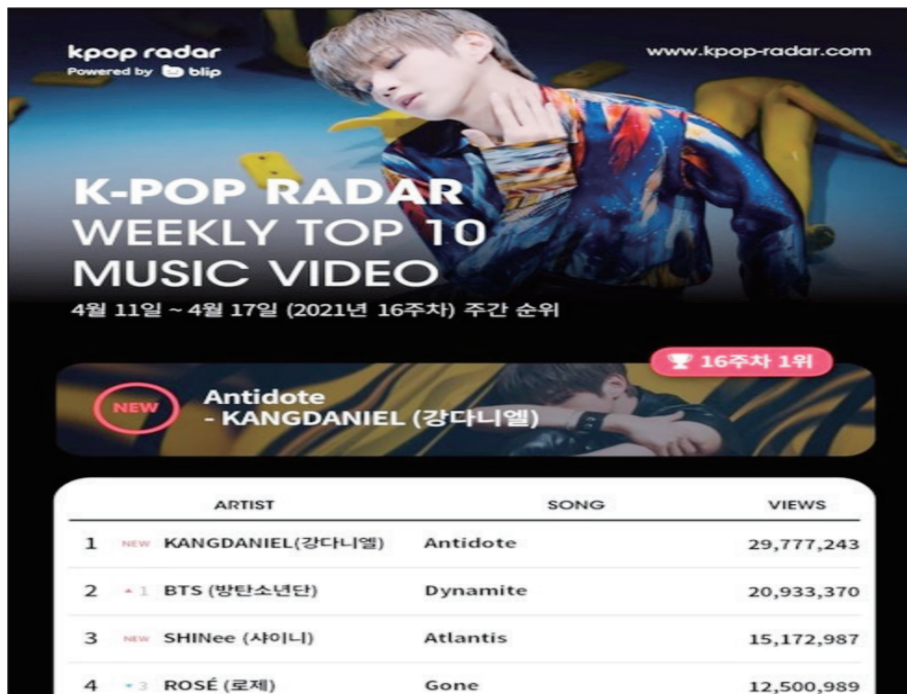
현재 강다니엘을 포함하여 53팀의 케이팝 아티스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케이팝 팬덤 앱 블립에 따르면, 강다니엘의 'Antidote'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공개 당일 자정 0시부터 1시간 동안 약 184만 3천 뷰가 증가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1분에 30,723명이 시청한 수치로, 이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이다.

이에 대해 케이팝 레이더 측은 "강다니엘은 'PARANOIA' 발매 이후 또 한 번 성장했다"며 "2개월 사이에 조회수 증가 속도는 약 4.5배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의 계속된 성장세를 증명하듯, 인스타그램 팔로워 역시 가파른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케이팝 레이더 측은 "PARANOIA' 발매 당시 411만 명이던 팔로워는 2개월 사이 428만 명으로 총 17만 명 경증 뛰었다"며 "아직 인기의 정점이 아닌 계속해서 성



장 중인 아티스트"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에서는 샤이니의 신곡 'Atlantis(아틀란티스)' 뮤직비디오가 1,517만 뷰를 기록하며 3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의 'Dynamite(다이너마이트)'(2,093만 뷰)를 비롯해 로제의 'Gone(곤)'(1,250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764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711만 뷰), 로제의 'On The Ground(온 더 그라운드)'(696만 뷰), 방탄소년단의 'MIC Drop (Steve Aoki Remix) (Feat. Designer)'(672만 뷰),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킬 디스 러브)'(659만 뷰),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하우 유 라이크

댓)'(656만 뷰) 등도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레이더는 케이팝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팬플랫폼 "내 손안의 텀메이트, 블립"을 선보인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에서 음악업계를 위하여 전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팬덤의 규모와 변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국내 589개 팀의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의 변화량을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케이팝 세계지도'를 공개해 오며 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래프와 현황을 발표했다.

전순희/기자

'멸망' 박보영-서인국, '생성-소멸' 강렬 대비!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의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박보영의 푸르른 생기와 '멸망' 서인국이 뿜어내는 검푸른 소멸의 기운이 완벽한 대비를 이루며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오는 5월 10일 밤 9시 첫 방송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이하 '멸망')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서인국 분)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박보영 분)의 아슬아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로 탁월한 필력을 인정받고, 차기작이 가장 기대되는 작가 0순위로 손꼽힌 임태리 작가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로 따스한 웃음을 선사한 권영일

감독의 의기투합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보영은 극중 평범한 삶에 끼여든 뜻밖의 운명에 자신의 목숨과 사랑을 걸기로 한 인간 '탁동경' 역을, 서인국은 지독한 운명에 끼여든 뜻밖의 삶에 자신의 연민과 사랑을 바치게 된 특별한 존재 '멸망' 역을 맡아 조율적인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이 가운데 '멸망' 측이 19일, 한쪽의 수채화 같은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공개된 포스터 속 동경과 멸망은 손을 맞잡은 채 마주선 투사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로의 손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깊은 눈빛과 둘 사이에 자리잡은 '멸망을 빌자, 사랑이 왔다'라는 메인 카피가 애절한 로맨스를 기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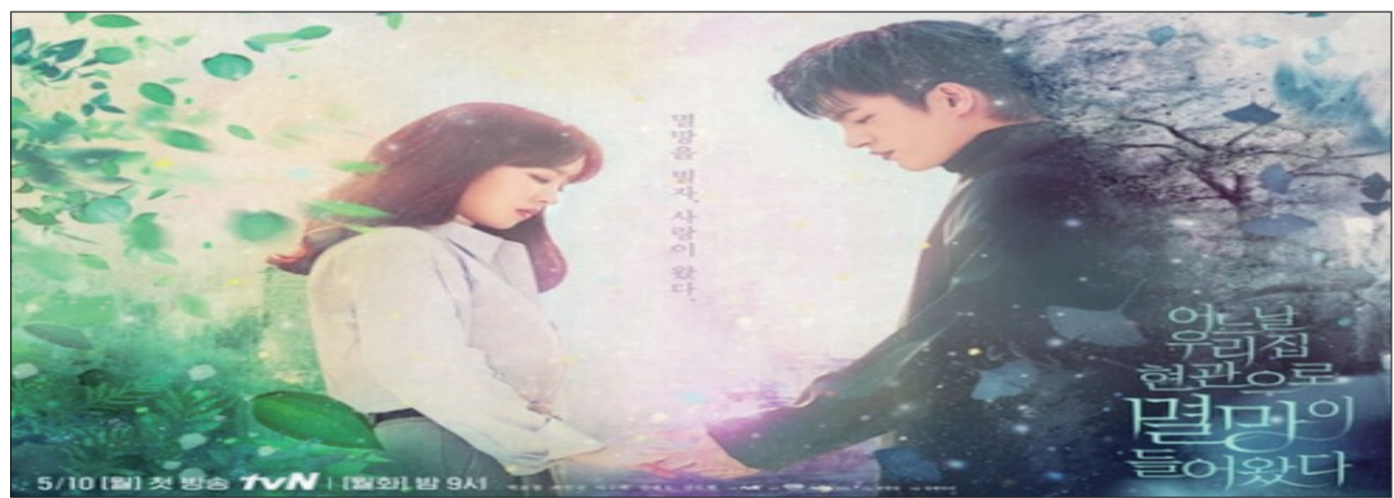
무엇보다 동경과 멸망이 뿜어내는 기운이 완벽한 대비를 이루며 호기심을 자아낸다. 동경의 뒤로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식물들의 모습이 그가 가진 생기와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반면 멸망의 뒤로는 색을 잃은 채 떨어지는 은행외과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더욱이 재가 날리는 듯 그의 등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검푸른 기운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멸망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에 너무도 다른 아우라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 동경과 특별한 존재 멸망이 어떤 이야기를 그려갈지, '멸망' 본 방송에 기대감이 치솟는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나빌레라' 후속으로 오는 5월 10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김세정, '1m' 활동 성공적 마무리!

김세정이 두 번째 미니 앨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곡 작사·작곡 → 성장한 음악적 스펙트럼X무한 가능성 입증! 역시 '갓세정'!

김세정은 지난 18일 SBS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두 번째 미니 앨범 '1m'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한층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과 싱어송라이터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하며 다시 한번 '믿고 듣는 김세정'의 지력을 증명했다.

김세정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완벽하게 달라진 힐링송으로 대중들을 위로했다. 발라드가 아닌 밝고 청량한 곡으로 돌아왔고, 쉬어야 할 텐 쉬어야 다음을 나아가는 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라며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가장 기본적인지만 가장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

김세정만의 위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앨범 발매와 동시에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 차트에 진입하며 '갓세정'의 위력을 보여줬고, 동시에 해외 다수 지역의 아이튠즈 앨범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다. tvN '온앤오프', JTBC '독립만세', SBS '타카타카' 등



에 출연해 센스 있는 입담과 발랄한 리액션은 물론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음악 방송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세정은 다양한 콘텐츠로 국내외 팬

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종로구 홍익대학교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레드북'으로 관객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전순희/기자

'빈센조' 허명행 무술감독에게 직접 듣는 '마피아' 송중기 액션 포인트

'빈센조' 송중기가 탄생시킨 액션 명장면들이 설렘과 짜릿함을 안기고 있다.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연출 김희원, 극본 박재범,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로고스필름)가 다크 히어로 빌런들의 끝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빈센조(송중기 분)가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고 싸늘하게 돌변하며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살기를 드러낸 빈센조가 빌런들에게 총을 겨누는 강렬한 엔딩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도 이어졌다. TV 화제성 분석기관인 굿데이 테코퍼레이션이 발표한 4월 3주차 화제성 지수(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에서 '빈센조'가 드라마 TV 화제성 부문 1위를 기록했고,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는 송중기가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저력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빈센조'는 강렬하고 임팩트 넘치는 액션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크 히어로 빈센조가 빌런들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액션신이 가미되며 캐릭터의 매력을 살려내고 있는 것. '빈센조'의 액션신은 인물이 마피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이기에, 매회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며 호평을 일으켰다.

캐릭터의 컨셉을 확실하게 살리며 보는 재미를 안긴 액션신들은 배우와 제작진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허명행 무술감독은 빈센조가 마피아라는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액션 시퀀스를 구성했다. "빈센조는 총을 사용하고,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가진 인물이다. 4부에서 빈센조가 전기충격기를 가진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옷걸이를 이용해 상당히 기술적인 액션을 취한다. 어렵고 테크니컬한 동작이지만, 너무 기술적으로만 보이면 리얼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물들 간의 부딪침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라며 빈센조 액션의 컨셉에 대해 설명했다. 빈센조가 구사하는 액션의 차별점은 다른 캐릭터와 함께하는 신에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허명행 무술감독은 "빈센조와 조사장(최영준 분)이 같이 나오는 액션신에서 두 인물의 결을 다르게 하고 싶었다. 조사장은 대의안보정보원 출신이므로 우리가 잘 아는 태권도, 합기도와 같은 쪽으로 컨셉을 줬다. 반면 빈센조는 허리위로 발차기를 하지 않는다. 그는 마피아이고, 그래서 발기술은 거의 쓰지 않는다. 빈센조는 타격보다는 제압에 더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캐릭터와 관련된 부분을 설정에 넣고 그걸 지키려고 했다"라며 캐릭터의 디테일한 설정들을 액션에 녹여냈음을 강조했다.

빈센조라는 캐릭터가 극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는 만큼, 액션 역시 신마다 다른 분위기로 차별점을 두었다. 유쾌한 장면에서는 그에 맞는 디테일이 추가되면서 재미를 더했다. 허명행 무술감독은 "레스토랑에서 빈센조가 박석도(김영웅

분) 무리와 붙을 때 날아오는 유리컵을 손으로 잡는 게 나온다. 그 신에서 "이젠 은근하가 아니라 대놓고 멋있다"라는 서미리(김윤혜 분)의 대사가 나오는데, 이걸 살려주는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넣은 장면이다. 약간 허무맹랑하기도 하지만 신기한 기술이지 않다. 지문에는 없어도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서 신을 극대화시키는 게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식탁보 액션에 대해서도 "테이블보를 도구로 쓰는 것 역시 없는 예기였는데, 빈센조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전수남(이달 분)이 테이블을 옆에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했다"라고 밝혔다.

마피아 빈센조의 분노와 본능이 폭발했던 10부의 총격전, 16부의 엔딩은 또 다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액션을 구성했다. 허명행 무술감독은 "10부 총격전은 빈센조가 왜 마피아 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장면이었다. 총을 들었을 때 빈센조 본인의 모습이 나올 것이고, 거의 처음으로 등장한 총격전이었다. 준비과정에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신이라 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라며, "사실 총격전은 원래 단순하다. 총을 쏘고 피하는 것밖에 없는데 차질 심해질 수 있는 장면에 근접점을 넣고, 길러들과 부딪쳐서 제압해나가는 것까지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한다. 드라마 전체에도 기승전결이 필요하지만, 액션 시퀀스 안에서 기승전결이 필요하다"라고 액션신의 흐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16부 엔딩에서는 빈센조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16부의 액션신은 빈센조가 감정의 끝으로 가는 장면이기에 액션의 결을 달리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빈센조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마다 액션을 다르게 한다. 감정이 없는 사람을 제압할 뎀 타격을 주거나 단순한 제압이 많이 들어가는데, 16회 엔딩은 완전히 다르다. 상대가 자신에게 방해가 안 되게끔 팔을 부러뜨리는 동작이 많다.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들을 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저는 그 장면을 액션신이라고 보단 감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액션을 할 때 인상을 쓰지 않고 표정을 건조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빈센조가 힘겹고 처절하게 싸우는 것도 좋지만, 액션보다는 그의 감정표현에 중점을 두고 싶었다. 드라마 내에서 빈센조의 감정에 방점을 찍은 장면이니까"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16부 액션신을 꼽았다.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액션신으로는 탁홍식(최덕문 분)이 쌍검과 용역들을 무찔렀던 가위 액션을 꼽으며 "이슈가 될 것 같았다"라고 센스 있는 답변을 건넸다.

배우 송중기의 액션에 대해서도 호평을 쏟아냈다. "액션을 정말 잘하고 습득력, 이해력이 빠르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 바로 인지하고 고쳐서 한다"라며 찬사를 아

끼지 않았다. "제가 현장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액션의 임팩트보다도 뉴앙스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조사장을 도와주러 빈센조가 나타났을 때, 상대방에게서 칼을 빼앗아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건 캐릭터의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며 "만약 장준우(옥택연 분)였다면 칼을 빼앗아 찔렀을 것이다. 하지만 빈센조는 그러지 않는다. 자기와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을 인지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빈센조가 완전한 악인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칼로 덤빈다고 그걸 찔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액션신 안에서 캐릭터를 드러내는 포인트를 짚었다. 다 허어로 빌런들의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개에서도 임팩트 넘치는 액션신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어머니의 죽음을 이후 후회한 빈센조가 빌런들을 어떻게 응징해 나갈지, 남은 이야기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현유주/기자

